

“뭘 믿고 돈 맡기겠나”... 신뢰·도덕성 다 무너진 금융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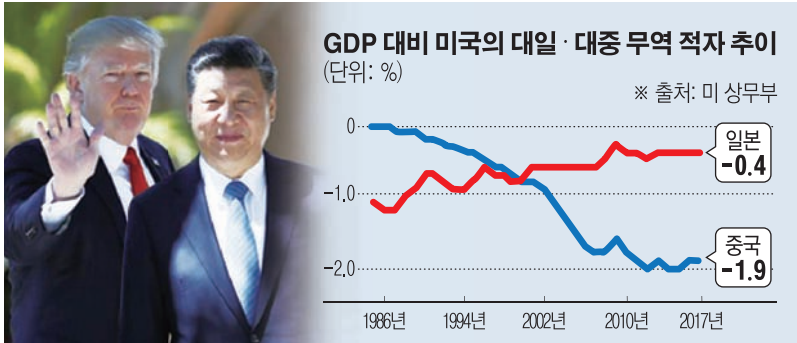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주일만에 로비성 출장 의혹이라는 ‘유탄’을 맞았다. 은행권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되며 발생한 신뢰와 도덕성의 상흔이 채 가지 않은 상황에서 앞선 데 덮친 격이다. 여기에 배당금 대신 112조 원 규모의 주식을 배당한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태’까지 덮치면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15년 상반기 조사한 금융 신뢰도지수를 보면 200점 만점에 86점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5%에 달한 정도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국민 ‘눈높이’ 못 미치는 금융산업 = 김기식 금감원장은 8일 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잇단 채용비리 관련 비위사실과 금융사고 등과 맞물리며 파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배포된 입장 자료는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는 게 요지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국외 출장 전력’은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안

삼성증권 112兆 배당 사고에 ‘300억’ 내다 판 양심불량 직원 김기식 금감원장, 의원시절 파감기관 돈으로 출장 ‘일파만파’로 미국과 유럽 출장을 갔다 온 것을 비롯해 2014~2015년의 세 건이다. 모두 파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갔고, 한국거래소·우리은행 같은 사실상의 민간기관이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원장의 논란이 단순히 사퇴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제는 김 원장이 이 같은 정치적 논란을 뒤로하고 금감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여부다. 금감원장은 57개 은행, 62개 보험사, 799개 증권·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 4500여 곳을 감독·총괄하는 자리다. 때문에 높은 도덕성은 금융산업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김 원장의 처신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지만, 만일 ‘도덕성’에 흠집이 날 경우 감독당국 수장으로서는 ‘영(令)’이 서지 않는다.

◇당국·금융회사, 모두 못 믿는 현실 = 금융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종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본연의 역할이 구분돼 있다. 금융회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로 신뢰성을 높이고,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6일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고는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에 큰 흠집을 남겼다.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당 1000주씩을 지급하는 유령주식 배당 사태가 발생했다. 발행 주식이 8930만 주이고 발행한도가 1억2000만 주인데

이날 잘못 배당된 주식은 무려 28억 3160만 주였다. 더구나 착오로 배당된 300억 원대의 주식을 시장가로 내다 팔아 추가 폭락의 방아쇠를 당긴 이 회사 직원은 투자자들의 가이드가 돼야 할 애널리스트로 확인됐다. 금융회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 등 유관 기관은 앞다퉈 보도 자료를 내면서 삼성증권에 관련된 문책, 투자자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부실 감독에 대한 자기반성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증권에만 책임만 묻는다면 제2, 제3의 유령주식 사태는 재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안철우 기자 acw@



관세폭탄 때리더니... 친구로 남자고?

트럼프의 ‘舊시대 강온전략’ ‘스트롱맨’ 시진핑에 통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서 승기를 쥐려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방법이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13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는 어떤 무역 분쟁이 있더라도 언제까지나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밝히며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결국 중국의 무역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은 강온전략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그는 5일 1000억 달러(약 106조9000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중국과 갈등 국면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뒤 트럼프는 사를 만에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주말 사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다시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은 일본을 상대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단행했다.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일본의 반도체 시장을 개방하고 철강 등 기타 제품 수입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과 지금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거대한 민족주의 국가이자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에 의존해왔다. 경제전략연구소(ESI)의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단행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과 전혀 다른 성격인 중국에 그런 방법이 다시 통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달리 당시 일본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일질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보복하겠다는 위협조차 없었다. 반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레이건 행정부 때 일본과의 무역 마찰은 오히려 일본에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 자동차와 전자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계기가 됐고, 이 업체들은 오늘날까지 수십만 명의 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동시에 일본은 지금까지 여전히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과 비슷한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 미국이 중국 기업의 자국 투자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견제하기 때문. 리서치 업체 로디움그룹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는 지난해 290억 달러로, 전년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막판 꽃샘추위 기승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진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꽃샘추위에 몸을 감싸며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의 봄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고이만 기자 photoeran@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정부 개입부터 줄여야”

기후변화센터 토론회

“시장안정화 장치가 시장질서 왜곡 제3기관에 위탁 유동성 조절해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기후변화센터의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선 시장 논리가 제대로 성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대통령령(시행령)’들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 밖의 배출권 거래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중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는 “가능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정부가 처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의해 시장 왜곡이 생길 우려에

대조 성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대통령령(시행령)’들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그 밖의 배출권 거래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정부가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찬중 국제배출권거래협회 이사는 “가능한 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정부가 처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면서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의해 시장 왜곡이 생길 우려에

안정화 조치를 만들어 둔 것”이라며 “그러나 제3자 거래가 금지되면서 온전한 시장이 될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결정됐다면 공고를 빨리 해서 업체들이 준비 기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배출권 여유분 이월·차입의 가격 안정화 장치가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배출권 거래 시장에선 동일 계획 기간 내에서 남은 거래권을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부족분을 차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 오히려 기업들이 배출

권을 자체적으로 이월하고 차입하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지웅 부경대 교수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 제3의 기관에 매매를 위탁해 경매함으로써 적어도 한 번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매하게 하고, EU의 하이브리드 정책(탄소세+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시행 속도에 대해서도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수 지속가능경영원(대한상의 소속) 실장은 “규제 수단으로 배출권 할당량이 줄어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 속도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류정호 기자 jungh216@

내일 한전 주총서 사장 선임... 김종갑 韓지멘스 회장 유력

김종갑(사진) 한국지멘스 회장이 조만간 열리는 한국전력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전 사장으로 선임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차관과 한국지멘스 회장을 지내는 등 민·관을 두루 경험하고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유력한 선임 배경이다. 9일 한전과 정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 한전은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어 사장 선임 건을 의결한다. 김 회장과 한전 해외 부문 부사장을 지낸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 이 최종 사장 후보로 올랐다.

이런 가운데 김 회장의 한전 사장행이 유력하다.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월~2007년 2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지내 공직 사회의 이해도가 높다. 특히 독일 에너지 관련 기업인 지멘스 한국 회장 경험은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을 이끌기에 적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을 시도하는 이번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된다. 또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독일을 일정

부분 벤치마킹하고 있어,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을 맡은 김 회장이 한·독 에너지 정책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전 임시 주총을 통해 김 회장의 한전 사장 선임이 의결되면 산업부의 제정을 거쳐 청와대의 안명으로 한전 사장으로 결정된다. 현



車도 타고, 茶도 한 잔
3社 자동차 전용 전시장 ▶19



高유가·低환율 겹착재
석화업계 발목잡나 ▶20



반려동물은 가족이니까...
펫팸족 “아낌없이 쓴다” ▶21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청춘반란 ⑭ 윤수영 멤버십 독서클럽 '트레바리' 대표

“知的 성장 돕는 ‘연결고리’ 역할”

#집과 직장을 쳄바퀴처럼 오가는 보통 직장인의 틀에 박힌 일상에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킨 스타트업이 있다. 직장인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퇴근 후 '트레바리'에서 만난다. IT회사의 30대 엔지니어, 40대 세무사, 대학원생, 한의사...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권의 책을 놓고 4시간 동안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술 한잔 기울이는 사이가 돼 있다.



윤수영 트레바리 대표는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트레바리를 통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트레바리

4개월에 19만~29만 원을 내고 가입하는 이 멤버십 독서클럽은 문을 연 지 2년 반 만에 150개 클럽, 한 시군당 21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여전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흔한 벤처투자 한 번 받지 않고 창업 첫해부터 영업이익을 내며 몸집을 불려온 트레바리의 올해 매출은 2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난 윤수영(30) 트레바리 대표는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앞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말로 덧붙였다.

트레바리는 이유 없이 남의 말에 반대하기를 좋아하거나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트레바리의 독서클럽은 경제, 경영, 통계, 문학, 음악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로 구분된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다음 분기 멤버십 모집에 이미 몇몇 클럽은 시작하자마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유료 독서모임에 자갑을 열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은 아니다. 윤 대표는 2014년 입사한 다음커뮤니케이션(카카오)을 이듬해 초 퇴사했다. 그는 “처음에 트레바리 모델을 기획하면서 테스트베드로 10명의 지인을 모아 독서모임을 열고, 다음 달엔 모임을 두 개로 늘렸다”면서 “이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돈을 낼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레바리의 주재별 클럽을 이끄는 클럽장들은 이만큼 들어도 알 만한 각 분야 전문가다. 예컨대 주택과 건설 분야 책을 읽는 ‘집집’클럽을 이끄는 클럽장은 유명 애널리스트, 통계 관련

책을 읽는 ‘넘버스’클럽을 이끄는 클럽장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의학과 교수다.

트레바리 창업 초 윤 대표는 연고가 없던 영역에서 이들 전문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발품을 많이 팔았다. “함께 클럽을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전화로 계속 설득했어요. 어떤 회사 대표의 경우는 회사에 찾아가서 승낙을 해 주실 때까지 옆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알았어. 할 테니까 좀 꺼져’라고 말씀해 주셨죠.” 윤 대표는 “제가 보기보다 끈질기다”고 말하며 웃었다.

경제·통계·문학 등 분야 세분화 독서 토론
창업 2년 반 만에 시군당 회원 2100명 성장
전문가 클럽장 영입 ‘멘토링’ 효과 큰 자산
지식 선도하는 글로벌 콘퍼런스 기업 목표

이렇게 영입한 전문가 그룹은 트레바리의 자산을 넘어 윤 대표의 자산이 됐다. 그는 처음 도전한 창업이 첫발을 잘 뒀 수 있었던 비결로 ‘멘토링’을 들었다. “사업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80%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자의 직관이나 고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일부죠.” 결국 많은 것들이 ‘한 곳’로 결정된다면 진짜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기 위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곳에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윤 대표는 “앞서 비슷한 길을 걸어본 선배들의 멘토링이 소중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상현 네이버 전 대표는 그가 가장 자주 조언을 구하는 멘토다.

앞으로 트레바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자 윤 대표는 “미래에 대해 선불리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올 초까진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 모은 자재로 탄탄하게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까진 서울에서 압구정과 안국에 이어 세 번째 아지트를 내고, 그 후엔 다른 도시로도 진출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트레바리를 통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장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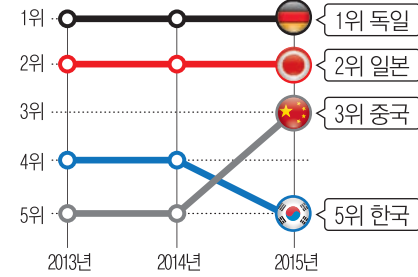
더 나아가선 트레바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우스바 이사우스웨스트(SXSW) 축제처럼 트렌드와 지식을 선

도하는 글로벌 콘퍼런스나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싶은 게 그의 꿈이다. 지금은 150여 개에 달하는 트레바리 클럽이 처음에 단 하나의 모임에서 출발했듯, 이달 말 열리는 첫 번째 대형 오프라인 콘퍼런스를 테스트베드 삼아 이런 사업 방향을 시험해볼 생각이다.

“아직 생각은 많은데 못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죠. 프로는 기획이 아니라 결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좋은 결과로 더 많은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호점 기자 gradually@

제조업 경쟁력 ※출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주요 기관 반도체 시장 전망



한국은행	반도체 호황 국면 내년 하반기 둔화 전망
가트너	2018년 한 자릿수 성장률 보인 후 2019년 매출 소폭 하락 예상
산업연구원	2018년 D램 주도의 고성능 지속되나 2019년부터 하락세 예상
LG경제연구원	2018년 하반기 이후 공급 증가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

한국경제 성장엔진 식어간다

완만한 성장 보이지만 경제전망 ‘우려’
KDI “광공업생산 부진·건설지표 악화”
韓銀도 “내년 반도체 시장 둔화 대비를”

한국 경제가 최근 수출과 소비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 투자 둔화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성장 엔진이 식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출의 17%나 차지했던 반도체 경기가 내년부터 매출이 감소하면서 점차 둔화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산업 활성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광공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생산 관련 지표의 개선 추세가 제한적이고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이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건설 투자 관련 지표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 투자는 건설기성이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건설 수주 등 선행지표 감소세도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준공물량이 5만2000호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지만 주택 착공물량은 2만5000호로 전년 대비 32.1%나 감소했다. 또 주택 인허가도 12.5% 감소하고 있어 향후 건설기성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감소

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8대 국내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한국 주력산업의 위기와 활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CIP에서 한국은 2015년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했다. 한국은 2009~2014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15년 5위로 하락했다. 반면 중국은 2009년 6위, 2012년 5위에 이어 2015년엔 두 계단 더 상승해 한국을 앞질렀다. 주력산업의 위기 원인은 경제·산업 구조의 낙후성, 만성적 글로벌 수요 부족 등이 꼽힌다.

호황 국면이 끝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다. 한국은행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6년 하반기 시작된 D램 주도 호황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다가 점진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외에 가트너,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해 수출의 17.0%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핵심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경제정책이 산업 활성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며 “만성적 수요 부족에 대응해 구조조정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도훈 기자 soqood@

중기중앙회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세제지원 총동원...청년일자리 늘려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청년 일자리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정책 혜택과 세제 지원을 총동원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달라는 압박으로 풀린다.

김 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주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제 등 정책 패키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박성택 회장과 신영선 부회장,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규 고용을 확대해 달

라”고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성 제고, 품질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2월 서울 마포 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해 주요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견련은 올해 4조3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해 1만14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회 역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답하는 대대적인 규모의 신규 투자 및 신규 채용 계획을 이날 오후 발표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소통 행보로 대기업에서는 LG그룹과 현대자동차, SK그룹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다음은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할 것이라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정필 기자 roman@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증권사 마음대로 주식 찍어내고 팔 수 있어… 사기 아닌가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일파만파

“증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사기 아닌가요? 금감원은 이런 일 감시하라고 있는곳 아닌가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중 일부)

지난주 금요일 발생한 삼성증권 자사주배당 사고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동의 서명자는 17만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거센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금융당국과 우리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만큼 빈약한 수준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점① 실제 없는 주식 판 증권사 믿을 수 있나 = 이번 사고의 발단은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는 점이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그러나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는 삼성증권은 신주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 계좌에 28억 3162만 주를 입금했다. 정관상 삼성증권의 발행가능 주식 수는 1억2000만 주이며, 현재 총 발행주식 수는 8930만 주에 불과하다. 애초에 28억 주는 존재할 수 없는 주식인 셈이다. 이렇게 나온 주식은 112조 원어치에 달한다.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지만, 금융당국과 한 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 어느 곳도 이를 막지 못했다. 전산상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에 실제 주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현 구에서는 주주별 고객계좌와 예탁계좌(예탁원 관 리)를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무방비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사태는 공모도 논란으로 번졌다. 증권사가 임의로 주식 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상식을 벗어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6일 시작된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모도' 금지 청와대 청원은 삼성증권이 없는 주식을 배당하

실제 없는 '유령주식' 한도까지 초과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17만명 돌파
직원 16명 '오류' 알고도 팔아치워…
구성원 사장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관리감독 부실' 금융당국 책임론도

고, 없는 주식을 유통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증권사가 대차 없는 무차입 공매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기회에 시장을 교란하는 공매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점2) 잘못된 것 알고도 팔아치운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 삼성증권 선임연구원 A씨는 사고 당일 78만4000주를 순식간에 팔아치웠다. 6일 종가(3만8350억 원)로 계산하면 3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애널리스트는 금융사와 투자자들에게 투자 전반의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역할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거액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 타자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처럼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한 물량은 모두 501만2000주로, 장을 열자마자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주가는 11% 이상 급락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모두 16명이다. 여기에는 애널리스트는 물론 팀장급 직원, 기업금융(IB) 직원, 리스크관리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누구보다 주식의 속성을 잘 아는 이들이 주가 급락의 방어쇠를 당긴 탓이다. 배당된 주식의 규모만 봐도 회사 측의 실수를 뻔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이들의 행태에 증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삼성증권은 16명을 대기발령하고 내부 문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모두 매도한 주식을 복원시키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은 전날 공식 사과문을 내고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문제점③ 구명난 시스템 전혀 모른 금융당국·책
임 없나 =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9일 '매매제도
개선반'을 구성,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
서 일명 '유령주식'을 우리사주 보유자에게 배당할
수 있었는지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전면 점검한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 당일에도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원인 규명과 사후 수습 책임을 넘긴 채 사건 모니터링에만 주력하는 등, 수동적 모습으로 일관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추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데 그쳤다. 상위기관인 금융위 역시 사고 발생 1주일 후인 8일 오후에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들을 모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홍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면서 주식시장 매매체결시스템 점검과 증권사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문제를 사전 인지하지 못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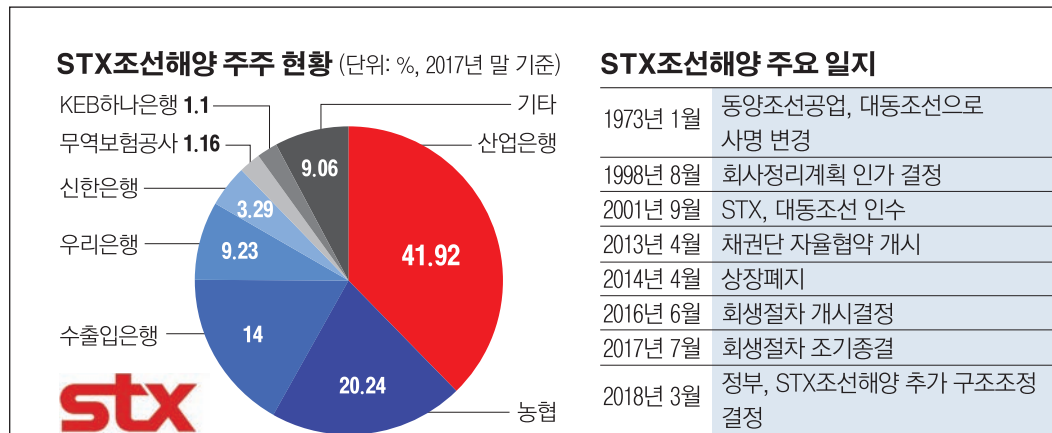
유희은 기자 euna@·차민영 기자 blooming@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고 일지

4월 6일	
오전 9시30분	삼성증권 직원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 잘못 배당, 28억주 잘못 입고(112조 원 규모)
오전 9시56분	삼성증권 16명 501만2000주 매도, 매도물량 급증, 장중 11.68% 폭락, 종가 3만8350원 (전일 대비 -3.64%)
오전 10시39분	삼성증권, 주식회수 사태 수습, 1차 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오후 6시15분	금감원, 삼성증권에 피해주주 대한 적극적 구제방안 요청

8일	
오후 1시50분	삼성증권 2차 사과문 발표
오후 3시	금융당국, 삼성증권 배당착오 처리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 재발 방지대책 논의

9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 17만 명 돌파
	금감원, 삼성증권 배당 착오입력 대응방안 발표
오전 10시	금융당국, 증권위 상임위원 반장 '매매제도 개선반' 구성, 주식관리 절차 전반 재점검, 삼성증권 포함 증권사 전수 검사



STX조선, 9개월 만에 또 법정관리 기로 결국 ‘대량해고 칼바람’ 부나

희망퇴직·아웃소싱 신청 144명뿐
채권단 제시 목표치에 한참 못미쳐
오늘 자구안 마감 불구 노사 입장차
회생절차 땀 법원 주도 해고 가능성

STX조선해양의 노사가 자구안·확약서를 9일
까지 산업은행 등 재관단에 제출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되면서 이 회사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 유력해졌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 고정비 절
감, 인수합병(M&A) 등을 추진한다. STX조선
해양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청산 또는 파
산이 아닌 회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관권은 법원 주도의 노동자 해고와 이뤄질지 여부다. 산은은 지난날 8일 STX조선해양이 고정비 40%를 절감하면 채권단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결정을 한 배경은 STX조선해양은 채권단 신규 자금 없이 자회계 2018년 2월 말 기준 1475억 원)으로 일정 기간 독자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STX조선해양은 2017년 서울회생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면서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개편기준 87.2%로 개선됐다. 이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인 2016년 5월 기준 자본잠식 상태였다. 성도진조선해양은 당장 신규자금이 투입이 없으면 회사경역이 불가능한 것과 상황이 다르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 주도의 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채권단이 내놓은 고정부 40% 절감은 생산직 인력 500여 명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8일 12시 기준 STX조선해양 직원 104명은 희망퇴직, 40명은 아웃소싱을 각각 신청했다. 아직 채권단이 제시한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STX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단은 법원에 고정부 절감시 은행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법원은 고정부 절감을 위한 생산자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 회생절차에서는 통상채를 위한 해고 절차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간주된다. 관리인의 해고 신청을 법원이 인가하면 통상해고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지역법원 파산부 관계자는 '회생절차상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절차에 따른다는 판례가 많이 있다'며 '채권들이 버리는 것 역시 회사의 구조조정을 법원이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운근 STX조선해양 대표이사는 역시 8일 "회사법정권리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고령비 감축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TX조선해양 노조가 9일까지 채권단의 구조조정 안을 받아들이기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전체 생산직 중 75%에 해당하는 인력을 내보내는 것은 노조가 스스로 수용하기 어렵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5시까지 노조가 확실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기업합병생략자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남의 편

여보~ 나 결심했어! ㅋ

태어날 아기를 위해 담배 끊을거야

술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실거고 뱃살도 빼야지

어떻게 생각해? ^^

오후 3:07

오후 3:10

남의편

여보...?

오후 3:11

오후 3:11

좀 더 스마트한 플랜 없어?

**인생에 진짜
스마트한 플랜을 짜야할 때**

(무)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 보종비용부과형
저해지환급형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는 더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무)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보종비용부과형, 저해지환급형)을 만나보세요

합리적 보험료

일반형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 부담을 낮춥니다 (저해지환급형 가입시)

똑똑한 혜택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는 세형나이
계약해당일에 장기유지보너스를 더해 드립니다.

드드하 가족생활

가족사랑의 마음을 담아 유고 시
가족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안정적 노후생활

노후에 생활자금 전환으로 사망보장을
줄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플러스가입시)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그직자 사고로 인한 애자사실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한다. · 이 보험계약은 유증자보험에 따라 유증보험금보다 보호하고, 보호한 한도, 유증보험에 가입한 귀하의 모든 예금보다 대상 금융공통의 해지환원금(은 민기보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보다 유증한 1인당 최고 5천만원 인고, 5천만원 이하를 넘지 아니금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험금보다 1년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가입대상인원 11-8002-2333(생년월일 2012.02.20) 생년월일생일 제 2018-789(생년월일 2012.02.27)



방송법 개정안 처리·개헌 대치로 꺾도는 4월 임시국회 最低賃金 산입범위 논의 언제나...

국회 일정 못잡아 법 개정 실패 우려 이정미 대표 환노위 간사 참여도 변수

여야 원내대표가 9일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개헌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이견만 재차 확인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형성된 4월 국회의 물꼬를 트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견만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체 국회 일정이 어그러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도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연 뒤 4일과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4차 회담을 잇달아 마련할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법 개정 실패할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민 정의당 대표가 4월 국회에서부터 환노위 간사로 참여하게 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이 대표를 환노위 간사로 전진 배치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당 대표가 간사에 포함되면서 법안소위 논의

에서부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며 "나름의 협업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대표의 합류로 골치 아파졌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직무 및 직책에 따라 받는 고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비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 때 제외된다. 최저임금 계산 때 포함되는 임금의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해외에선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대개 상여금이나 숙식비를 포함시킨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선 상여금과 숙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숙식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넣는다.

김하비 기자 honey@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현안을 논의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출발선에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4조 일자리 追更案'

한국·바른미래당 "반대"...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조건부 찬성

야당은 9일 정부와 여당의 4조 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압박에 맞서 '강 대 강'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내 지도부의 협상 전과와는 별도로 일자리 추경 비판 토론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과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나성민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내 경제통(通)인 추 의원은 앞서 추경과 관련해 "법적 편성 요건에도 맞지 않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출하는 2000년 이후 최초의 추경"이라며 "모든 면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묘수'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알뜰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 역시 "정부는 청년실업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실효성 없이 세금만 무작정 쏟아붓는 미봉책

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 지도부도 4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개헌안 합의 등과는 별개로 추경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6일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편성했는데 국민 세금으로 돈을 풀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환상이고 허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은 '추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원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김중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안이 긴급 수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회적인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책으로 갈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치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욱 기자 dragon@

與, 권력구조 뺀 '2단계 개헌론' 왜?

합의 가능한 것만 지방선거 때, 나머지는 2020년 총선 때
靑, 공식적으로 부인...협상에 힘쓰고 데드라인 압박 의도

청와대가 최근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2단계 개헌론'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하지만 내부 기류는 단계적 개헌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 합의 가능한 것만 2020년 총선 때 개헌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개헌론에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는 말은 여러 번 했다"고 말해 단계적 개헌론에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국회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 개헌을 하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는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으로 선화해 이번 국회 개헌에 여당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를 놓고 야 3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제를 강하게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국회 통과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시행을 하려면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 합의 가능한 선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개헌은 2020년 총선 때 하자는 견해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도 개헌에 권력구조 개편을 빼지 않고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물 건너갈 수 있는 데다 여당이 야당과의 개헌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단계적 개헌론을 검토하면서 여당의 개헌 협상에 힘을 실어주고 얼마 남지 않은 개헌 데드라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와대 내부에서 기본권을 비롯한 지방분권에서도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번 개헌안에서 뺄 수 있다는 입장까지 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2년 만에 개최되는 韓中 경제공동위 사드보복 해제 "가시적 성과" 나올까

〈양제츠 중 정치국 위원 발언〉

이달 중·하순께 중국 베이징서

한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연례 협의체가 2년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달 중국 양제츠 특사의 방한 이후 현재 양국 사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관광 정상화를 비롯해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 진행, 선양(瀋陽) 롯데월드 프로젝트 재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우리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는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4월 중·하순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당국이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현황 점검과 우리

나라의 신북방·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 연계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방안, 양국 기업에 대해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의 전망은 밝다.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양국 현안과 관련해 "관련 사항은 이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이 공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조현 외교부 2차관, 중국 측에서는 가오옌 상무부 부장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당국자들도 참석한다. 양국은 1993년부터 연례 개최를 원칙으로 양국에서 번갈아 가며 경제 공동위를 개최해왔다.

정용욱 기자 dragon@

후원문의 1588-1940
www.childfund.or.kr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소통은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이 줄어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편지로 마음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밝은 인성이 자랍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甲질 애플’ 1000억대 과징금 철퇴 맞나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수리비 떠넘겨
공정위, 애플측 의견 수렴 後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아이폰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애플에 과징금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최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장과 같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애플 측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 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애플 매출이 조(兆) 단위여서 1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는 것은 애플코리아의 비용 떠넘기기다. 그동안 애플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이통사들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겼지만, 고객 유치를 위해 애플 아이폰이 필요한 이통사들은 ‘올더 겨자 먹기’로 애플 측 요구에 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에 아이폰8, 아이폰X(텐) 출시에 맞춰 TV 광고가 방영됐지만, 이에 대한 비용은 애플코리아가 아닌 이동통신 3사가 부담했다. 광고는 모두 같은 내용이며 통신사 로고는 뒤편에 1~2초 가량 등장한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 홍보를 위한 행사비, 이통사 대리점 내 진열대 홍보 등도 이통사가 부담해왔다. 또한, 애플은 이통사에 아이폰 무상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아이폰 X의 가격을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 원 넘게 비싸게 출시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법 23조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에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판매로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효를 적용해 2011년께부터 최근까지 약 7년간 매출을 관련 매출로 잡는다면 많게는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우리 돈 약 7억 원의 벌금을, 프랑스는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우리 돈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박엘리 기자 ellee@



양수영 석유공사 신임 사장 현장행보

한국석유공사는 양수영 신임 사장이 7일부터 곡성, 여수, 거제, 울산 등 4개 석유비축기지와 울산 가스전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고 8일 전했다. 사진은 양 사장(왼쪽 세 번째)이 석유비축기지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한국석유공사

한국, 美소고기 수입액 세계 2위

1조3000억… 수입량 18만4152톤 ‘3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물량이 세계 3위, 액수로는 2위를 기록했다.

9일 미국육류수출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고기 및 부산물 포함) 수입량은 총 18만4152톤으로 집계됐다. 일본(30만7559톤)과 멕시코(23만7972톤)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국가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을 인구 규모로 환산할 경우 한국은 국민 1인당 3.5kg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2.4kg)과 멕시코(1.9kg)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총 12억 20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일본(18억9000만 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지난해 소고기 총수출액(72억6900만 달러)의 16.8%를 차지하는 규모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016년 멕시코를 누르고 세계 2위로 올라선 뒤 2년 연속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 들어 1~2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억 590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했다.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은 53.5%로, 호주산

(41.3%)을 압도했다.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호주산을 14년 만에 역전한 바 있다. 2004년부터 한국의 소고기 수입량 1위를 지켜왔던 호주산은 지난해 미국산에 자리를 내주게 됐다.

2001년 소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미국산 소고기는 2003년까지 수입량 1위를 유지하다가,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소고기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수차례에 걸친 한·미 정부 간 협상 끝에 2008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수입이 재개됐다.

국내에서 미국산 소고기 소비가 살아나는 것은 무엇보다 그동안의 안전성 우려가 크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소고기가 식당 메뉴로 많이 대체된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뉴질랜드산 소고기 수입은 1만8786톤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하면서, 미국산과 호주산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캐나다산은 5200톤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며 4위에 올랐다.

이정필 기자 roman@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 인터넷으로 청약하세요

국무조정실, 38건 규제 정비안 발표

앞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주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교 등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이 최대 250%까지 허용돼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민·이용자 편의 개선 24건 △생활편의업종 창업·영업 활성화 14건 등 총 38건의 규제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건물주택 등 현장에서만 가능하던 신혼부부·다자녀자 등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내 기숙사도 법적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학생의 기숙사 이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학교 내 기숙사는 최대한도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또 고령사회화로 노인 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린벨트 내 노인 요양병원의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재 25개 업종에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도립·군립공원 내 입자·건축 제한은 지역 특성에 맞게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 숙박을 40% 범위에서 허용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한다. 해수부는 무인도서(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섬)에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 사업과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허용하도록 무인도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정비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통령령 이하 규제정비는 상반기 중에, 법률정비는 하반기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이다.

박엘리 기자 ellee@

“한미研 지원중단 靑 개입 없었다”

대외경제硏, 소장교체 의혹 등 반박
“SAIS, 국회 요구 미수용에 결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예산 지원 중단과 소장 교체 의혹에 대해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외경제연은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정책 현안이 있을 때 정부 부처는 물론 청와대에 보고 및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USKI와 관련해서도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실전 방안 및 대미공공외교의 효율화 측면에 대해 개선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 의혹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으로 의견을 교환했을 뿐, USKI 예산 지원 중단 문제를 요구받은 적은 물론,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USKI 예산 지원 중단은 SAIS로부터 국회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내린 결

정”이라며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여타 외부 영향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소장 교체 의혹에 대해선 구재회 USKI 소장이 안식년을 가겠다고 SAIA 학장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설령 학장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해도 안식년은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장 본인의 판단으로 이를 허락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대외경제연이 구 소장에게 보완 요청한 자료는 예·결산 보고서이며, 이와 관련해 2016년까지는 한 페이지로 사업별 총액만 기재한 총괄표 수준으로 보고했고 이외에는 각종 칼럼, 기고문, 뉴스레터, 세미나 발표문 등 예·결산 내역과 관계없는 자료를 모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세부 집행 내역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USKI 측에서는 가결산 잠정 내역이라며 세부 집행 내역을 비공식적으로 보내왔으나, 이에 대해 SAIS 측에선 현존 SAIS의 회계 시스템상 공식인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5일 통보해 왔다고 대외경제연은 전했다.

박병립 기자 riby@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190호 (2016-10-1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1059호 (2017-10-12~2018-10-11)

[헤 아 리 다]

고객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금융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내려면
알맞은 온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금융에 깊이를 더하는 일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의 바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정규직 채용공고 入社한 근로자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아파트 입주자회, 관리소장 계약갱신 거절 효력 없다”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5년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다. 당시 공고에 적힌 채용 형태는 ‘정규직’이었다.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

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씨의 근로계약 기간을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바뀐 뒤 A씨의 근로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이전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A씨의 근로계약 연장을 결정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2017년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해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 역시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는 내용의 구인공고를 보고 입사하게 된 것”이며 “이 아파트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지만 반복적으로 갱신돼 A씨의 전임자 역시 17년 정도 근무했다”며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 이유 없이 A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민서 기자 only@

檢, 오늘 이명박 前대통령 기소

횡령·배임·뇌물 등 혐의…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9일 재판에 넘겨진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받은 뇌물 수수 혐의액만 120억 원대에 이른다. 그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

활동비 총 17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그밖에 △삼성그룹(67억7000만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성동조선해양(22억5000만 원) △대보그룹(5억 원) △ABC상사(2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지광 스님(3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그는 다스의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배임,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받는 데 국가권력을 동원한 혐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빼돌려 보관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를 이어가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개입 의혹, 다스 관계사를 동원해 아들 이시형 씨를 부당 지원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된다.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뇌물이 포함된 만큼 부패전담부 21·22·23·27·32·33부 가운데 한 곳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중 열린다. 증거를 신중하고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후 다음 달 이 전 대통령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넘겨진 지 40여 일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憲裁 “사기범행 고백했어도 감형 안된 건 차별 아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을 반성한 가해자의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확정받은 A씨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 자복에 따른 감형을 허용한 제도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자기의 사기 범행사실을 알렸고 잘못을 인정했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감형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형사소추의 해제조건이 된다”며 “해당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자복하는 것은 형

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란 점에서 자수와 구조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만 자복에 대해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소추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범죄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데 기인한다”며 “반의사불벌죄 이외의 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자복한 사람에 대해 감형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4주기’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4·16 단원고 기억교실을 찾은 부천 송내동 청소년 문화의집 관계자들이 교실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후진’

지난달 전년대비 5200명 감소… 이달 GM 군산공장 폐쇄면 더 큰 타격

기타운송장비업은 2년째 줄어

미국 현지판매 부진 등으로 3월 자동차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됐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수는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전체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297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9만7000명) 늘었다. 지난달 제조업 전체 피보험자는

35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기계장비·식료품·전자통신 등의 업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섬유제품·의복모피 등은 감소세가 이어졌고, 자동차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3월 자동차 제조업 취업자 수는 3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00명이 감소했다. 1월 취업자 수는 2200명, 2월에는 3300명이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면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완성차 제조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부품 제조업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음달 한국GM 군산공장 폐

쇄를 앞두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일자리 타격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조선업은 구조조정 탓에 여전히 위축돼 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2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울산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북은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피보험자가 크게 감소하며 조선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1만3000명) 증가했다.

박은평 기자 pepe@

“軍인권침해, 계급별로 보면 ‘중령’ 최다”

군인권센터, 병사보다 간부가 많아

군에서의 인권침해는 병사보다 간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공개한 ‘군인권센터 2017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접수한 상담은 모두 1036건에 달한다. 이는 2016년 432건보다 2.39배 많은 것이다. 정치적 상황으로는 탄핵과 정권 교체, 군 내부적으로는 박찬주 대장 등의 ‘갑질’, 육군 성 소수자 색출, 의경 인권침해 등 대의적으로 문제된

사건들이 상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된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간부인 사건이 304건을 기록해 병사인 사건 90건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간부 중에서는 위·영관급 장교(소위~대령)가 가해자인 사건이 163건으로 부사관(하사~원사) 102건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39건을 차지한 중령은 단일 계급으로는 가해자가 가장 많았다.

군인권센터는 중령이 대대장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으로 분석했

다.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일선 부대인 대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대대장이 휘하 장병들의 고충을 신고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대장 사건 등 장성(장군)이 가해자인 사건은 39건이었다.

이 밖에도 병력이 가장 많고 복무 지역·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는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0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h point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지금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세계로 향하는 KT&G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험난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온 KT&G.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글로벌 Top 4의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 GLOBAL TOP 4

2017 수출 1조원 달성 ↑

1965

베트남

1999

미국

2001

중국

중국 시장 진출

2008

터키

현지 공장 준공

2009

이란

현지 공장 준공

2010

러시아

현지 공장 준공

2017

중남미·아프리카

신규 시장 확대

중국 시장 진출

(아랍에미리트)

터키 이스탄불

현지 공장 준공

(불루 모스크)

이란 테헤란

현지 공장 준공

(아반 모스크)

러시아 칼루가

현지 공장 준공

(붉은 광장)

중남미 지역

신규 시장 확대

(과테말라 티칼)

KT&G

상상을 나누다

KT&G



‘제보’만 기다리는 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신고센터 운영 두 달
대부분 ‘익명’·‘카더라’식으로 그쳐
검사 진행·예정 한 곳도 없어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밝힌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현장 검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8일 제2금융권 채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

를 운영을 시작했으나 현재 검사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검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은행 등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신뢰할 만한 제보 등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제보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부분 제보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제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사를 검토할 만한 사례는 ‘몇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 허위연락처 등에 의한, 소위 ‘카더라’ 식의 제보도 상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자가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정황 파악을 위해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메일이 반송되거나 통화가 거절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아 검사하는 방식으로는 채용비리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건상 전수조사는 쉽지 않

아 보인다.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 검사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제2금융권은 대부분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등 은행에 비해 민간회사 성격이 크다는 점 등도 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2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제2금융권 채용비리에 대한 검사 확대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전반적인 채용비리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2금융권 관련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DGB금융, 차기 CEO 선임 절차 돌입

후보 범위 외부출신까지 확대
勞組,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DGB금융지주가 박인규 회장 사임에 따른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차기 CEO 선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DGB금융이 지배구조 개선과 조직 쇄신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DGB금융지주와 은행은 11일 통합이사회를 열고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위한 경영승계 비상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사회에서는 △회장·행장 분리 선임

△후보군 선정 범위 및 방식 △임원후보 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차기 CEO 선임 일정 등에 관해 논의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은행 노조는 9~1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합이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장·행장 분리 선임은 지배구조개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간단치 않은 문제다. DGB그룹은 계열사 중 은행 자산 규모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1은행’ 체제로 ‘2은행’ 체제인 타 지방지주사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회장·행장 분리는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왕적 지배

구조 체제로 인한 부작용과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차기 회장 후보 범위를 외부 출신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고려 대상이다.

DGB금융 내외부에서는 실질적인 조직 쇄신을 위해서는 차기 승계구도를 내부 출신으로 국한하지 않고 외부 공모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DGB금융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앉히려니 낙한 논란이 일고 내부에서 선출하려니 전임 회장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 인물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 승

계에 관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내부 규정에 따라 임추위가 구성되고 40일 이내에 CEO 인선을 완료해야 한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CEO리스크와 채용비리로 타격을 입은 DGB금융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통합이사회는 한 사외이사는 “조직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경영권 승계 문제를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일 체제로 후임을 정하고 나중에 분리할지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의견 취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정원 대구은행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은 거의 트라우마 수준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후임 CEO 선임 작업은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농협금융, 미안마서 농기계 할부금융사업

HTOO그룹과 구체적 계획 교환… 7월 MOU 첫 성과로 론칭 예정

NH농협금융은 미안마 최대 기업인 투(HTOO)그룹과 농기계 할부금융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방한한 우 폐표 테자 투(HTOO)그룹 회장과 부회장, 전무, 보험사 사장 등 12명의 임원진과 MOU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향후 일정 등 추진 로드맵에 관한 의향을 교환했다.

양측은 4월 중순까지 농협금융, 투그룹, 농기계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TF를 발족하고, 6월 말까지 사업모델, 금융구조, 당사자별 역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MOU 첫 성과로 농기계 할부금융 사업을 론칭할 예정이다. 농기계 할부금융 사업에는 2016년 말 진출한 농협파이낸스미안마(농협은행)가 참여하게 돼 현지의



5일 서울 서대문 NH농협금융지주 본관에서 NH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오른쪽)과 투(HTOO)그룹 우 폐표 테자(U Pye Phyto Tay Za) 회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협금융

안정적 고객 확보와 사업 확대 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협금융과 투그룹은 다양한 금

융 부문 협력 사업 방안도 논의했다. 외환, 펀테크, 보험 등 업무제휴와 임직원 연수를 우선 추진하고, 미안마 내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었던 회사법이 개정·시행되는 대로, 투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자본 투자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투그룹이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안할 경우 농협경제지주 및 관련 자회사와 긴밀히 협조해 중자 등 협력사업을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금융과 실물을 연계한 농협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저축銀 예금자보호 못받는 금액 5兆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6만3486명… 저축은행 사태 이후 최대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에 예금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이 5조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 79곳에 돈을 넣은 사람 중 예금액이 5000만 원을 넘긴 예금자는 6만3486명에 달했다. 총 8조5881억 원 규모다.

이 중 예금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은 5조4138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20%가량 많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사태’ 직전인 2010년 말 6조 9123억 원 이후 가장 크다. 이와 맞물려 전체 저축은행 예금에서 보호받지 못 하는 돈이 차지하는 비중도 10.1%에서 10.7%로 0.6%포인트 올라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파산 시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예금

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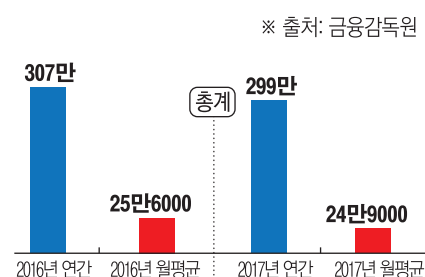
2009년 말 7조6000억 원에 달했던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급감하다 2013년 3분기에는 1조7342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그랬던 것이 최근 들어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면서 5000만 원 초과 예금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저축은행의 건전성 개선과 낮은 금리를 예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31%, 고정이자여신비율은 5.1%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48%로 1.95%인 은행보다 0.5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연금저축 연간 연금수령액 현황 (단위: 원)

	2016년		2017년	
	연간	월 평균	연간	월 평균
보험	247만	20만16000	245만	20만4000
신탁	623만	51만9000	557만	46만4000
펀드	514만	42만8000	610만	50만8000



연금저축 月평균 25만 원 받아… 노후대비 ‘미흡’

稅혜택 축소로 가입자 증가세 둔화

연금저축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25만 원에 불과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월 16만 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계약당 연금 수령액이 연간 299만 원(월평균 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만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험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 수령액이 245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신탁 557만 원, 펀드 610만 원 순으로 높았다. 보험을 통해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이다.

계약자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연간 5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령액 200만 원 이하 계 약 비중은 52.3%로 가장 높았다. 200만 ~500만 원인 계약은 28.9%이며, 1200만

원 초과 계약은 2.4%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25만 원에 불과해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연금저축 기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104만 원)의 59%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연금저축의 총 적립금, 계약당 적립금 등은 양적 성장을 지속했으나 저축 여력 감소와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연금저축 적립금, 가입자 증가세 등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1000억 원(계약수 699만 건)으로 전년(118조 원) 대비 8.6% 증가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0만3000명으로 전년(556만5000명)보다 0.7% 늘어났다.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4987억 원) 감소한 반면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 원) 증가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www.douzone.com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주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계,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줄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관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과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수퍼북)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계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가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출산, 육아 고민 등 직원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협력사에 줄 부품대금도 부족할 판 한국지엠 부평공장마저 존폐 위기

부품대금 3000억·급여 등
이달 말까지 1조 가량 필요
차입금 더하면 2조7000억

카젼 사장 “부품 못받으면
결국 생산 멈춰야 할 수도”

한국지엠(GM) 4월 필요 자금

(단위: 억 원) *한국GM 실사 기간 차입금 상환 보유

급여성 자금	차입금 및 부품대
2017년 성과급 50%(1만6000여 명 X 450만 원) 730	GM 본사 및 GM홀딩스 등 계열사 차입금(4월 만기) 9900
희망퇴직자 위로금(2500여 명 X 평균 2억 원) 5000	GM 본사 차입금(상환 만기 3차례 연기) 7000
4월 근로자 급여(희망퇴직자 제외 4월 평균치) 1000	협력사 부품대금(월 평균치) 3000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GM)이 당장 4월 급여 지급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몰렸다. 이달 말까지 필요한 급여성 자금과 협력사 부품대금만 약 1조 원에 달해 자칫 부평공장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지엠과 이 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한국지엠은 차입금을 제외하고도 약 1조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이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부품 조달이 끊겨 생산시설이 멈추게 된다. 결국 수출 물량을 중국 등 인근 제너럴모터스(GM) 생산시설에 뺏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지엠은 매달 평균 약 3000억 원의 부품대금을 협력사에 지급해 왔다. 회사는 매달 협력사에서 부품을 공급받고 이들에게 매출 채권을 발행한다. 협력사는

이 채권을 다음 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달 납품 대금 대신 협력사에 준 '매출 채권'을 이달 말 현금으로 결제해야 할 상황인 셈이다.

올 들어 완성차 판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협력사 매출 채권은 큰 차이가 없다. 일정 수준 부품 제고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협력사에 대한 부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향후 몇 개월 안에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그나마 정상 가동 중이었던 부평공장마저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인건비도 문제다. 애초 6월 지급 예정이었던 2017년 지급분(50%)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다. 1만6000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절반 수준인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여기에만 약 720억 원

이 필요한 상태다.

이튿날인 10일과 25일에는 각각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4월 급여도 줘야 한다. 여기에만 1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에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약 2500명에게 위로금도 지급해야 한다. 2~3년치 연봉, 평균 2억 원으로만 계산해도 약 500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결국 4월 한 달 필수 비용이 △부품대금 △성과급 △급여 △희망퇴직 위로금 등 총 1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GM 본사와 계열사 등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까지 더하면 약 2조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2월 이사회에서 '실사기간 차입금 상환 연기'가 결정됐지만 철수론이 거론되는 GM이 막판 전략 수정에 나설지 모른다는 관측



백운규(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카젠 사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도 이어진다.

카젠 카젠 한국GM 사장은 최근 구매팀 등 본사 부서들을 돌며 일반직 직원들과 회사 현황을 주제로 대화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그는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곧 협력사들에 줘야 할 부품대금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며 “부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부평공장) 생산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형 기자 junior@



지난달 22일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뉴스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복귀 신호탄 쏜 JY 대규모 M&A 시동 거나

16일간 외국 출장 마치고 귀국
이번주부터 비공개 현안보고
신성장동력 등 구상 밝힐 듯

16일 만에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인수합병(M&A)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9월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주부터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등 참모진의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으며 경영 활동을 이끌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검찰이 삼성 '노동조합 와해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회사 출근 및 국내 활동은 당분간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현안 점검 등에 나서고,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업계 대표 등을 만나 사업 논의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업무의 80% 이상이 글로벌 사업과 관련된 것이었고, 1년 중 3분의 1 정도는 외국에 있었다”며 “검찰 수사와 비판 여론 등으로 국내 행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외국행

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길에서 그는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을 방문하면서 주요 사업 거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업무 면담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IT 업계 대표들과 인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I와 관련한 기술 동향, 사업 현안 등을 파악하고 현지 관계자들과 면담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프랑스 파리에 AI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설립한 AI 연구센터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평소 M&A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출장이 대규모 M&A를 재개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6년 전장부품 업체 하만 인수 이후 사실상 대형 M&A 작업이 중단됐다.

한편, 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통해 삼성의 뇌물 금액이 이 부회장 항소심 당시 36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늘었지만, 법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으로서는 한시름 덜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영록 기자 syr@

패조의 스타트



실적 쏠림·대외환경 ‘불안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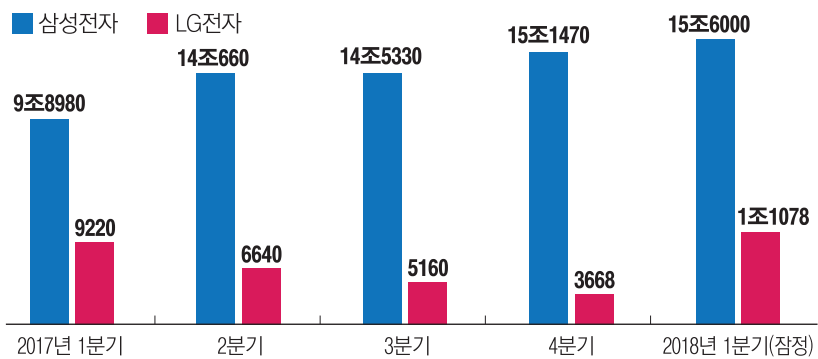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15兆
반도체 11조로 70.5% 차지
미래먹거리 확보 적극 나설 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6일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최대 실적을 향한 패조의 스타트다. 그러나 유례없는 호 실적 속에서도 대외 환경의 불안, 사업의 실적 쏠림현상 등 두 회사의 취약점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각각 영업이익 60조 원과 3조 원대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60조 원, 영업이익 15조6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LG전자는 매출 15조1283억 원, 영업이익 1조1078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슈퍼호황과 갤럭시S9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도체(DS) 부문에서 약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스마트폰(IM) 부문에서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삼성·LG전자 영업이익 추이(단위: 억 원)



가전제품(올레드 TV, 트윈워시 세탁기 등)의 판매 비중 확대와 함께 건조기·트롬 스타일러 등의 건강관리 기기의 판매 호조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인다.

출발은 좋지만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깊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 등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매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이 11조 원이라고 볼 때 전체 영업이익의 70.5%가 반도체 부문이 차지하고 있어 지나친 실적 쏠림 현상이 고민이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

근 3년간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했고, 향후 반도체 업계 이익 성장세는 둔화될 소지가 크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이룰 새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중국의 반도체 가격 인하 압박과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강화,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 부정적 여론 등도 우려의 요소다.

LG전자도 TV사업을 하는 HE사업 본부와 가전 사업을 하는 H&A사업 본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VC사업본부는 여전히 이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프리미엄 가전 호조
스마트폰·차부품 이익 못내
차 전장부품 시너지 확대 기대

LG전자도 셰이프드 이슈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으로 가전과 스마트폰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LG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축소되면서 시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향후 경영 일선에 복귀,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먹거리 확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도 MC사업본부의 적자폭 축소를 위해 신제품 출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마케팅 비용 축소와 스마트폰 관련 연구조직을 재배치했다. 또 VC(전장부품)사업본부도 자동차부품업체 ZKW 인수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전장부품 사업의 시너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기념행사도 없이... 금호아시아나 우울한 창립 72주년

금타 분리·아시아나 유동성 위기 등 위축... 금호홀딩스 지주사 전환도 당분간 중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이 7일 창립 72주년을 맞았으나 어떤 공식행사도 없이 조용히 기념일을 보냈다. 그룹 재건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금호타이어의 분리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창립 72주년과 관련해 특별히 진행된 행사는 없었다”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역시 별다른 일정

없이 업무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몇 년간 창립 기념일과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핵심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경영권을 잃은 탓이다. 이후 박삼구 회장은 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위해 나섰다 2015년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인수에 실패하며 박 회장은 창립

초심으로 돌아가 항공과 건설, 고숙사업을 주축으로 ‘다시’ 그룹 재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그룹 최대 현안은 주력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안정성 확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소속기업체 평가에서 심층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연말부터 실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이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한 것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발적으로 수립한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비핵심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노력해 왔다. 지난달 중순 광화문 사옥을 매각했으며 CJ대한통 주식도 팔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해 만기도래가 예정된 여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구체적인 연장 기한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점쳐졌던 금호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금호그룹이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이 합병을 결정하자 금호그룹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해 왔다. 문성영 기자 moon@

통신장에 SKT 730만 명에 이틀치 요금 준다는데...

일괄 보상에 생계형 피해자 불만

참여연대, 소비자 분쟁조정 검토
SKT “최대 300억... 신속 결정”

통신장해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자 700만 명에게 총 300억 원의 보상금을 약속한 가운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상 금액과 대상을 일괄적으로 정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 서비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택배와 대리기사들의 피해가 큰 만큼 참여연대는 소비자 분쟁조정을 검토 중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가량 통신장해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730만 명이다. 보상액은 600원에서 최대 7300원이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요금제인 월정액 6만 5000원대 요금제의 경우 피해 고객이 선택약정할인 외에 적용받는 할인이 없다면 약 4400원을 보상받게 된다. 업계에선 총보상금이 200억~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SK텔레콤은 9일까지 보상 대상 고객에게 차례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통화 실패 기

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엔 지급하기로 한 피해 보상액과 보상 대상은 약관상의 기준보다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안을 마련했고, 기준과 관계없이 피해 본 고객 모두에게 보상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통신 장애 시간과 보상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큰데 보상액이 너무 작다는 얘기가.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통신 서비스를 영업 활동에 이용하는 개인 고객을 위한 별도 보상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참여연대는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보상안도 소비자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마련하기보다는 회사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함께 사는 즐거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조정대상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 관리비·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 층간소음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 리모델링 / 혼합주택단지 / 공동주택관리기구

신청요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분쟁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



031-738-3300



1월엔 “과열” 83%, 3월엔 60%…“침체 전망”은 10%→16%

不動産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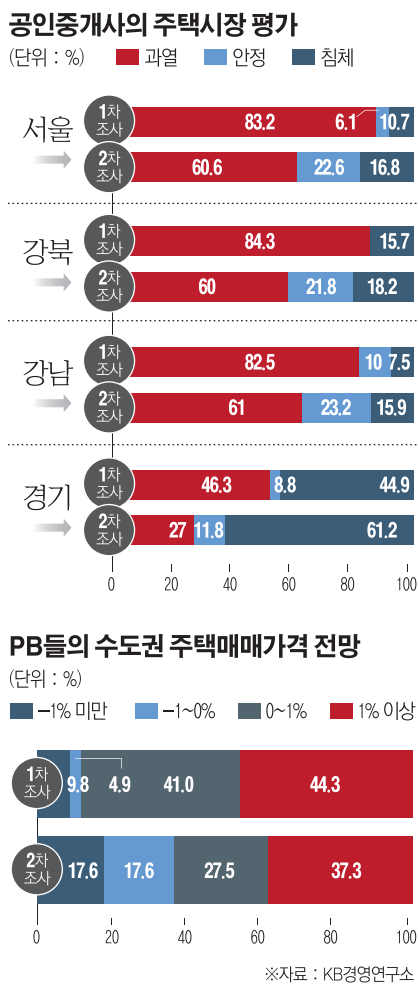
KB 경영연구소, 공인중개사·PB 두차례 조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지방도 ‘침체’ 응답 늘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망도 85%→64% 하락
정부 정책영향 가시화...입주물량·未분양 증가 영향

주택 가격 전망이 두 달 만에 엇갈렸다. 올 초 가격 상승에 쏠렸던 전문가 전망이 공급과잉 등을 이유로 방향을 반대로 틀었다. 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PB를 대상으로 1월(8~17일), 3월(15~19일) 두 번에 걸쳐 주택시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택 가격 전망이 상승에서 하락 우세로 바뀌었다. 공인중개사(1차 507명, 2차 503명 참여)들은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서울의 경우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3월 들어 그 기대감이 크게 감소했다. 서울 외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 정부 규

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약 2개월의 짧은 시차를 두고 시행됐음에도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1차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과열됐다고 대답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60.6%로 줄었다. 침체를 전망한 응답률은 반대로 10.7%에서 16.8%로 증가했다. 서울 외 지역도 경기도의 침체 평가 응답률은 1차 44.9%에서 2차 61.2%로 올랐다. 6대 광역시(54.2%→76.5%), 기타 지방(61.2%→80.5%)의 침체 의견도 비스

한 양상을 보였다. 가격 전망도 엇갈렸다. 1차 조사에서 공인중개사 50.1%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60.0%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경기, 6대 광역시, 기타 지방의 경우 올해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최근 미분양이 늘고 있는 기타 지방 역시 입주물량 증가를 가격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PB들(1차 61명, 2차 51명)도 주택가격 하락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PB들 역시 1·2차에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매매가격 하락전망 비중이 2차 조사 때 더 높았다. 1차 조사에서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란 응답률은 85.2%를 보였으나, 2차에서는 64.7%로 낮아졌다. 반대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은 14.8%에서 35.3%로 증가했다. 연구소는 “올해 들어 정부 정책의 영향이 가시화되고 금리인상 가능성 등 시장 하방압력이 증대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사회희 기자 jhsseo@



서울 번진 전세가 하락, 강남4구 낙폭 가장 커

2월 셋째주 이후 -0.46%...서초 -1.86%, 강동·송파 -1.55%, 강남 -1.00%

최근 폭발적 입주물량 영향
전문가 “일시적 현상” 분석

경인권에서부터 시작된 전세가 하락세가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올해 많은 입주물량이 공급되는 강남 4구의 약세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9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의 전세가 하락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올해 4월 첫째 주까지 18주 연속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서울은 비교적 늦은 시점인 2월 셋째 주부터 하락세가 시작돼 7주간 -0.46%로 하락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강남 4구를 묶은 서울 동남권역의 전세가 하락이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 전세가가 하락한 7주간 강남 4구의 평균 전세가 하락은 -1.45%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서초 -1.86% △강동 -1.55% △송파 -1.55% △강남 -1.00% 순으로 전세가가 내렸다. 이 기간 강남 4

구를 제외한 서울 다른 자치구에서 전세가 하락이 -1%p 이상 나타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강남 전세가의 약세는 올해 이 지역에 집중된 폭발적인 입주물량 공급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가 낙폭이 가장 두드러진 서초구의 경우 ‘아크로리버뷰’, ‘신반포자이’,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 등 2000여 가구가 올해 입주한다. 송파구의 경우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9510가구의 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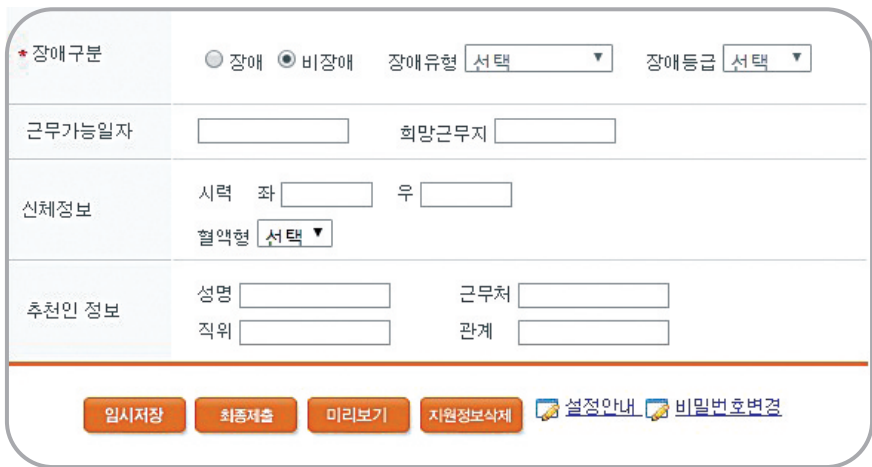
리오시티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강남구에서는 ‘래미안 루체하임’과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강동구에서는 올해는 ‘현대 리버파크’ 72가구가만 입주하지만 내년엔 고덕자구의 1만여 가구 규모의 대거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 전세가의 약세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도 내다본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은 “요즘의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강남은 현재 입주물량도 많지만 멸실될 주택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최근의 전세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추천인’ 없으면 지원 못하나요?

호반건설 신입공채 이력서에...“상대적 박탈감” 비판

호반 “當落 무관...참고 용도”
호반건설이 올해 상반기 실시한 신입사원 공채에서 이력서(사진)에 ‘추천인’을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권 등에 불어닥친 특혜 채용 논란으로 블라인드 방식까지 도입되는 상황에서 추천인 기재는 ‘구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원자들로 하여금 이력서에 추천인을 써 넣도록 했다. 특히 추천인의 실명은 물론 근무처와,

직위, 지원자와의 관계까지 써 넣도록 해 추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이번 공채에 지원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사에 지원했는데 이력서에 추천인을 쓰라는 경우는 호반건설이 처음이라 당황했다”며 “주변에 추천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마땅히 없어 결국 공란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연했다. 호반건설 측은 추천인 기재는 지원자의 당락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추천인은 지원자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인 다”며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2월 대우건설 인수 직전까지 갈 정도로 성장한 회사인 만큼 채용 과정의 신뢰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 지원서에 추천인을 쓰도록 하는 회사는 없다”며 “자신 규모가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할 정도로 커진 만큼 입사 지원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국내 판매 또한 본격적인 국내 생산에 돌입하며 지역총판 및 대리점 수요가 계속 증가세에 있다. 판매 실적에서도 삼성물산,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한양,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서희건설, 라온건설, 화성산업 등 대형사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까지 도입에 나서며 제품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5. 6월엔 NC원터치철근커플러 신(新)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3세대 모델 역시 개발 완성 단계로 특허출원 중에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엔씨, 원터치 철근커플러 ‘환태평양 지진대’ 멕시코 수출

지난해 기술인증 획득...耐震 효과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공포로 인한 내진성능 강화 및 안정성 강화로 구조 안전성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바뀌 정도로 최근 대형 지진들이 발생하며 공포가 커지고, 이로 인한 내진설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긴 철근을 이어주는 이음장치인 철근커플러의 경우 작은 요소이지만, 구

조 성능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일반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와 자재업계 등에서는 철근커플러의 구조 성능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 ㈜엔씨에서는 세계 최초 원터치형 커플러인 ‘NC원터치철근커플러’를 지난해 10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1, 2차 심사를 통과해 ‘구조기술에 적합함을 인정함’이라는 ‘기술인증서’를 획득했다. 여기에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해 국내인증 시험테스트(인장강도,

최영진의 현안진단

‘로또 청약’ 디에이치 자이 개포 未계약분 눈독 들이는 사람들

주택시장의 최대 화두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 계약 관련 사안이 큰 관심거리다. 당첨자는 분양 대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일반인들은 미계약분 아파트에 눈독을 들이는 모양새다. 자금 여력이 약한 당첨자들은 분양금 마련 문제로 밤잠을 설칠 판이다. 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시세 차익이 6억~7억 원으로 추정되는 당첨권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확실한 자금 계획 없이 덤펄 계약을 하기도 두렵다. 계약금은 그렇다 치고 중도금을 제때 안 내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한다. 게다가 중도금을 3번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부자들이야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 11억~30억 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조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중도금은 시공사 보증으로 집단 대출을 받아 충당했으나 디에이치 자이는 모두 자기가 알아서 조달하도록 돼 있다. 예전 같으면 분양권을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로 이마저도 어렵다. 이에 따라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 당첨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기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는 계약 포기로 인해 미계약분 물량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만 아니다.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했거나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도 상당할 듯싶다. 이런저런 일로 선착순 분양 대상인 미계약분 잔여 물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계약을 끝낸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 사례를 봐도 그렇다. 이 아파트의 미계약 물량은 128가구로 일반 분양분의 22% 규모다. 적지 않은 물량이다. 디에이치 자이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이 1245가구여서 예상되는 미계약분은 200가구 이상 되지 않겠느냐는 소리다. 이들 잔여 물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디에이치 자이 미계약분에 눈독을 들인다. 물론 당첨자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수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그냥 날려 버릴 사람은 없다. 이를 감안할 때 온갖 편법·불법이 동원될 확률이 높다. 계약금마저 낼 입장이 안 되는 경우 암암리에 분양권을 전매하려 들 것이고 반대로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는 게 관련 중개업소의 말이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으나 사적 거래여서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고가의 프리미엄을 얹어 쥐도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자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다. 입주 후 한 2년간 당첨자 명의로 뒀다가 적당한 구매자를 찾아 넘기는 수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를 놓아도 원금은 대충 회수할 수 있다. 이런 판에 누가 계약을 포기하겠는가. 어렵사리 잡은 행운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는 말이다. 어쩌면 미계약에 따른 잔여 물량은 계약 포기보다 청약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로 인한 당첨 취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세간의 관심은 황금 알로 불리는 잔여 물량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쏠려 있다. 말이 선착순 분양이지 사업 시행사의 농간에 개입될 여지는 다분하다. 규정상 임의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한테 쥐도 불법이 아니다. 그렇지만 워낙 관심이 큰 사업장이어서 특정인과 엄밀한 거래를 했다가는 특혜 분양 의혹을 받을지 모른다. 시행사는 철저하게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들겠지만 편법 분양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시행사가 좋은 물건을 빼놓았다가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돈을 챙긴 사례도 있다. 그러나 디에이치 자이는 워낙 민감한 곳이어서 편·불법을 저질렀다가는 들통이 날 확률이 높다. 큰돈 좀 벌어보겠다고 무리하게 담뽀다가 신세 망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대가자 choibak14@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둘째 주는 전국에 총 6511가구가 분양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 등 3245가구, 지방은 충남 천안시 문화동 ‘힐스테이트 천안’ 등 3266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 = 대림산업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신도시 A-19(1)블록에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 66~84㎡, 총 2038가구로 지어진다. 지하철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이 계획돼 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
4/9(월)	접수	서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2순위
		경기	안산시	고잔동	안산중앙리베로 ♣
4/10(화)	접수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지구대방노블랜드(A12-1,2) 1순위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A19) 1순위
4/11(수)	접수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지구대방노블랜드(A12-1,2) 2순위
		경기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양주신도시4차(A19) 2순위
		강원	철원군	철원읍	철원섬석미노성파크2차(민간임대) (~4/13)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파크그린 1순위
		충남	천안시	문화동	힐스테이트천안 1순위
4/12(목)	오픈	세종	세종시	나성동	세종제일풍경채워너스카이(HC2)
		부산	북구	만덕동	e편한세상금정산 1순위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파크그린 2순위
4/13(금)	오픈	충남	천안시	문화동	힐스테이트천안 2순위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금성백조예미지3차
		경기	화성시	장지동	테라스더모스트동탄 ♣
		경남	김해시	외동	김해쌍용에기더클래스
		경남	김해시	창유동	김해올하리수빌다스테이(민간임대)
	접수	부산	북구	만덕동	e편한세상금정산 2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글로벌 車업계, CEO 세대교체 고심

글로벌 자동차 업체 CEO들의 재직 기간

					
카를로스 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디터 제체	도요타 아키오	랄프 스페스	하칸 사무엘슨
르노	FCA	다임러	도요타	재규어	볼보
13년(2005년 취임)	14년(2004년 취임)	12년(2006년 취임)	9년(2009년 취임)	8년(2010년 취임)	6년(2012년 취임)
올해 임기 4년 연장. 곤이 떠난 이후에도 발전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최대 과제	올해 말 후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	내년 은퇴 앞두고 있어, 현재 후계자 선정 작업 진행 여부 불확실	일본 임원 임기 65세가 정년. 도요타 아키오 현 CEO는 61세	2020년 임기 끝나. 한노 키리노 최고전략 책임자(CSO) 등이 후계로 거론	임기 2020년 만료. 현재 후계자 선정 작업 중

※ 출처: 파이낸셜타임스(FT)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시작으로 르노·다임러·도요타 등 수년 내 선임 남성·자국민 우선주의 탈피할지 관심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차세대 리더 선정이 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량,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유례없는 전환기를 맞은 가운데 현 최고경영자(CEO) 교체할 준비해야 해 그 어느 때보다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개했다.

스펜서스튜어트의 랄프 랜드만 수석 애널리스트는 “우리는 세대에 걸친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새 사업 모델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르노,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다임러, 도요타, 재규어, 볼보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최소 수년 안에 승계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 타자는 FCA다. FCA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CEO는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차기 CEO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마르치오네는 그동안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후계자가 겪을

부담도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르치오네와 과거에 함께 일했던 한 소식통은 “슈퍼맨이 FCA의 수장이 돼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의 카를로스 곤 CEO도 마르치오네와 마찬가지로 거침없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두 CEO와 모두 일을 해봤다고 밝힌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이 두 CEO의 경영 스타일은 이들의 조직에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FT는 자동차 업체들이 후계자를 고를 때 외부 인사와 여성, 외국인 등을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례적 변화의 시기에 잘 적응하려면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FCA는 마르치오네 CEO의 후임을 내부에서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영입이 더 나은 것이라고 조언했다. 리서치업체 인지토의 크리스 톤킨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자동차 업계의 리더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확실한 점은 기술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나 상업적으로 숙련된 재무담당자라는 점만으로는 CEO로서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자동차 업체 CEO 중 한 명인 앨런 멀러리 포드 전 CEO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멀러리 전 CEO는 포드의 CEO에 오르기 전 보잉의 상업 항공기 사업 책임자로 근무했다. 자동차 산업과 인연이 없었던 그는 2006년 포드가 3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최악의 재정 상

태일 때 수장에 올라 기업가치를 크게 높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훌륭히 넘겼다. 포드 주니어 회장은 멀러리 전 CEO를 향해 “CEO 명예의 전당에 올라도 될 인물”이라고 극찬했다.

작년에 선임된 짐 해켓 포드 CEO도 자동차 산업에는 문외한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사무용 가구회사 스타케이스에서 30년간 일했다. 포드와 인연을 맺은 것은 2013년 이사회 구성원이 되면서 부터였다.

외부 영입 문제만큼 화두가 된 건 CEO의 성별이다. 현재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CEO가 메이저 자동차 업체 중 유일한 여성이다. 바라 CEO와 시트로엥의 린다 잭슨 CEO 정도를 제외하고는 업계에서 여성 CEO는 거의 찾기 힘들다.

자동차 산업의 가장 글로벌한 산업에 속함에도 CEO를 선정할 때는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현재 독일 3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다임러, BMW 모두 수장이 독일인이다. FCA는 이탈리아 CEO를, 볼보는 스웨덴 CEO를 두고 있다. 일본의 3대 자동차 업체인 혼다, 도요타, 닛산 모두 CEO는 일본인이다. 미국의 포드, GM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거의 유일한 예외가 카를로스 곤이다. 그는 프랑스와 브라질, 레바논 등 무려 3개의 국적을 갖고 있으며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활약했다. 곤 CEO는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보다 성과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美 우선주의에 답할 차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폐회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시진핑, 마이크 앞에 선다

10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 예정 덩샤오핑의 중국 개방 40주년 맞아 또다른 개혁·개방 청사진 그릴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거대한 무역 압박에 직면한 가운데 역사적인 연설을 앞두고 있다.

8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에서 ‘아시아의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보아오포럼이 개막했다. 시 주석은 10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아오포럼을 찾는다. 올해 보아오포럼의 주제는 ‘개방 혁신의 아시아, 번영 발전의 세계’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미국의 무역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대담하고 새로운 경제 개혁과 시장 개방 조치를 설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덩샤오핑이 중국 개혁·개방을 주창한 지 40주년 되는 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가 개혁·개방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발표하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사람들은 중국이 어떻게 개혁을 진전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답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아오에서 시 주석이 가장 권위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중국이 취할 새로운 개방 및 개혁 조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美서 파산한 토이저러스 日선 승승장구한 까닭은

아마존·월마트에 치인 장난감 소매점 저출산 일본에선 별써부터 사양 사업 경쟁자 없어 ‘부전승’ …“교육용 주력”

장난감 소매업체 토이저러스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토이저러스는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에 이어 매장을 폐쇄하며 사업을 청산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평온하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의 확대에 의한 유통 환경의 변화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명암이 엇갈린 이유를 최근 니혼게이지아신문이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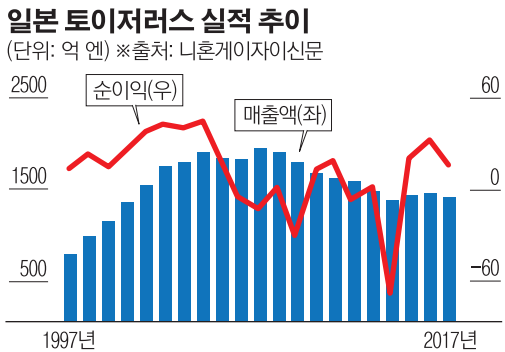
토이저러스는 지난달 14일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사업을 완전히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의 공세를 이기지 못한 데다 재정난이 겹친 탓이다. 지난해 9월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회생을 꾀했으나 채무 조정에 실패하면서 10년간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됐다. 토이저러스는 미국 내 700여 개 매장 전부를 닫기로 했다.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유통업체가 장난감 시장을 침식하면서 토이저러스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토이저러스 모두 전자상거래의 위협을 받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 환경 차이가 양국 토이저러스의 운명을 갈라놓아 줬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인구 구조였다. 일반적으로 저출산은 경제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토이저러스에는 전혀 다르게 작용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장난감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한 토이저러스에 처음으로 도전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였다. 월마트는 장난감 매장을 확충하고 토이저러스보다 낮은 가격에 판



1992년 1월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찰스 라지러스 토이저러스 회장이 일본에서 개점한 2호점 매장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매를 시작했다. 당시 인구가 증가했던 미국에서 장난감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평가돼 시어스나 K마트 등 다른 소매업체들도 월마트를 따라 장난감 판매업에 뛰어들었다. 이미 아마존이

창업하던 1994년까부터 토이저러스는 위협에 시달린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서 토이저러스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나 온라인을 장악한 아마존을 이길 수 없었다.

반면 저출산 사회인 일본에서 장난감 판매는 사양 산업으로 취급됐다. 1991년 1만5243개였던 일본 내 장난감 매장은 2014년 6364개까지 급감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도 장난감 매장을 줄였다. 미국과 달리 토이저러스에 대항할 만한 자본력을 지닌 대형 유통업체들이 장난감 시장과 거리를 두었다. 그 사이 일본 토이저러스는 1991년 1호점을 연 이래 매장을 꾸준히 늘렸다. 매장 수가 가장 많을 때는 200개에 달했다.

8000억 엔(약 729612억 원) 규모의 일본 장난감 시장에서 토이저러스의 매출액 추정치는 최근 몇 년 동안 1700억 엔을 유지하고 있다. 경쟁자가 없는 토이저러스는 대형 상업 시설에 ‘들어와 줬으면 하는 가게’로 자리매김했다. 니혼게이지아신문은 토이저러스는 일종의 ‘부전승’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터 하벨 일본 토이저러스 사장은 “미국과 달리 일본 사업은 탄탄하다”면서 “자동차가 없으면 매장에 갈 수 없는 미국과 달리 매장에 접근하기 쉬운 게 일본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에도 매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교육용 완구나 건강에 좋은 장난감 등에 주력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온라인의 편리함도 있고 매장의 장점도 있다. 옴니채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몇 년 후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이저러스만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감정을 모니터링하라…두려움이 사라질 테니



실패 두려움 극복하는 4가지 방법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항상 압박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국 워릭대 경영대학원의 제임스 헤이턴 교수는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 기고한 글에서 △감정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것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 △학습 △멘토의 지원을 구할 것 등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소개했다.

미국 벤처기업가들의 약 75%는 자신의 기업이 앞으로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심지어 성공한 기업가들도 항상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 미국 요거트 업체 초바니의 합디 올루카아 설립자 겸 CEO는 “매일 두려움을 느낀다”며 “내가 실패하면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히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거나 목표를 잘못 세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두려움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CEO들이 해야 할 일이다.

헤이턴 교수는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CEO는 헤이턴 교수와의 면담에서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지 않은 가운데 프로젝트를 들여다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CEO는 “최근 불안을 분리할 수 있는 법을 배

웠다”며 “그것은 일시적 감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밝혔다.

감정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CEO들이 자신의 사고에 침투하는 감정 징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면 목표 설정과 의사 결정에 있어 부정적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면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업가들은 사업 아이디어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행동지향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다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다 새로운 위협에 빠질 수 있다.

두려운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학습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헤이턴 교수는 “학습은 두려움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라며 “이는 CEO의 능력을 향상시켜 의구심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CEO들은 정규 교육과 훈련은 물론 전문가들의 리서치 보고서, 멘토와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홀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것보다 멘토의 지원을 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헤이턴 교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감정 통제와 문제 해결, 학습 등 세 가지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멘토”라고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영상·만화 만들어 카드뉴스로 논평 내죠”

김빈 민주당 디지털대변인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아이유, 김빈 디지털 대변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6번째로 영입한 인사였던 김빈(36·사진) 디지털대변인이 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소개했다. 아이유처럼 친근한 이미지와 노력하는 모습으로 주변을 밝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다.

“디지털대변인”이란 직책이 생소하다는 기자의 말에 김 대변인은 뉴미디어 콘텐츠와 소통이란 키워드를 꺼냈다. 김 대변인은 “당 대변인들은 정당 혹은 대표의 입장을 텍스트 기반의 브리핑을 통해 드러내는데 디지털 대변인은 이미지, 영상, 만화 등 새로운 형식으로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카드 뉴스로도 논평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미디어는 직접 국민과 소

뉴미디어, 국민과 직접 소통

“청년 대신 미래세대로 부르고

정치 참여 환경 만들어 줘야”

LG전자 ‘김태희폰’ 디자인도

통한다. 디지털대변인은 당원의 피드백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한다. 과거의 정치가 단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메시지가 도달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디자이너였던 김 대변인이 정치에 몸을 담은 데는 문 대통령의 한마디가 힘이 됐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러시더라,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 말에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인 김 대변인은 2004년 LG전자에 입사해 ‘김태희폰’을 디자인한 인물로, 휴대전화 디자



인 전략 및 경영팀을 거쳐 2009년 뉴욕현대미술관 데스태이션 서울프로젝트에서는 ‘드링크클립’(DrinkKlip)으로 데뷔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드링크클립은 작은 통이 달린 클립 형태의 고정 장치를 책상이나 가구에 끼워 컵 홀더나 화분 진열대 등으로 쓰는 디자인 소품이다. 2013년에는 빈컴퍼니를 창업해 전통의 소재와 문

양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해 해외 유수의 산업 박람회와 전시회에 출품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청년 정치에 대해 개념 재정립과 사회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청년이란 말을 싫어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단어 프레임은 깬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청년이란 말 자체를 미래세대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에서의 청년과 법적인 청년은 맞지 않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청년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청년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등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사회에 불신이 있죠. 청년을 정치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글/김하니 기자 honey@
사진/고이관 기자 photoeran@

14번홀 극적인 버디... 리드, 생애 첫 메이저 품었다

PGA 투어 마스터스 우승

파울러 1타차로 제쳐... 상금 21억

마스터스의 ‘신(神)의 선택’은 패트릭 리드(28·미국·사진)였다.

총상금 1100만 달러(약 111억 6000만원)가 걸린 제82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리드가 정상에 올랐다. 대회 출전 166번째 만이다. 리드는 우승상금 198만 달러(약 21억 1000만 원)를 획득했다.

리드는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3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1타를 줄여 함께 15언더파 273타로 막판 추격에 나선 리키 파울러(미국)를 1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반에 버디와 보기를 2개씩 주고 받은 리드는 후반 들어 11, 12번홀에서 보기와 버디를 주고 받은 뒤 14번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잡아내며 우



승 발판을 마련했다.

행운도 따랐다. 리드는 15번홀(파5)에서 세컨드 샷한 볼이 그린 앞 개울에 빠진 상황에서 극적으로 언덕에 올라 파로 잘 막았다. 메이저대회 첫승을 거둔 리드는 PGA투어 통산 6승을 달성했다. 리키 파

울러(30·미국)는 이날 18번홀에서 버디퍼트를 성공시키며 5타를 줄여 함께 14언더파 274타를 쳐 단독 2위에 올랐다.

이날 조던 스피스(25·미국)의 샷도 빛났다. 16번홀까지 무려 버디만 9개를 잡아내며 한때 리드와 공동선두에 나섰던

스피스는 마지막 18번홀(파4)의 보기가 아쉬움으로 남았다. 스피스는 8타를 줄여 함께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9위에서 단독 3위로 경종 뛰었다. 선두와 9타차로 출발한 스피스는 1, 2번홀에서 버디를 골라낸 뒤 5번홀 버디에 이어 8, 9번홀에서 연속버디를 잡아냈다. 그러나 18번홀에서 티샷이 나무를 맞아 2순에 실패해 보기를 범했다.

2위로 출발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2타를 잃어 함께 9언더파 279타를 쳐 공동 5위로 밀려나 커리어 그랜드슬램은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43·미국)는 이날 3타를 줄여 함께 1오버파 289타를 쳐 전날보다 9계단 상승한 공동 32위에 랭크됐다. 대회 내내 파5홀에서 부진했던 우즈는 이날 처음으로 15번홀(파5)에서 ‘천금의 이글’을 기록했다.

안성찬 골프 대기자 golfahn58@

사립대총장협의회장에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6일 가천대학교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김인철(사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기는 2020년 4월 7일까지다.

김 총장은 1988년부터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4년 한국외대 총장에 선출된 뒤 올해 연임에 성공했다. 사총협은 이날 총회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은평 기자 pepe@



강풍에도 무결점 플레이... 김지현, KLPGA 개막전 우승

‘롯데렌터카...’ 1타차 역전승

지난해 ‘지현’ 풍몰의 주역인 ‘차밍레이디’ 김지현(27·한화큐셀·사진)이 국내 개막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지현은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220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6억 원) 최종일 2라운드에서 4타를 줄여 함께 9언더파 135타를 쳐 오지현(22·KB금융그룹)을 1타차로 제치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우승상금 1억2000만 원.

지난해 기아차 한국여자오픈 우승 이



후 정상에 오른 김지현은 지난해 3승에 이어 1승을 추가하며 통산 4승을 올렸다. 6번홀까지 파행진을 벌인 김지현은 7, 9번홀에서 정밀다리 버디를 골라낸 데 이

어 11, 12번홀에서 줄비타로 타수를 낮춘 이후 나머지는 파로 잘 막았다.

이번 대회는 첫날 경기를 마친 뒤 2, 3라운드 강풍과 눈 등 기상악화로 취소돼 2라운드 36홀 경기로 축소돼 열렸다. 강풍이 부는 가운데 오후호에서 경기를 가진 김지현은 이날 보기없이 버디만 4개 골라내며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오지현은 이날 버디 9개, 보기 2개로 7언더파 65타를 쳐 단독 2위, 디펜딩 챔피언 이정은(62·대방건설)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천금의 이글’을 잡아 함께 7언더파 137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안성찬 골프 대기자 golfahn58@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황보국 <국장급 승진> △대변인 이현수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정환 <국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권진호 △고객지원팀장 김남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동욱 △외국인력담당관 노예순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조원식

◆환경부 <국장급 승진> △대구지방환경청장 정경운 <국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과장 강복규 △수생태보전과장 김진식

◆법제처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양정원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진 △혁신행정인사담당관 송상훈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최봉래 △법제조정법제관 김태원 △경제법제국 법제관 손대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방극봉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금창섭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정세희 △법제지원국 자치법규임인지원팀장 백종운 <과장급 파견> △정책기획위원회 이상훈 △부산광역시 법제협력관 김금련 △강원도 법제협력관 진정용 △경상북도 법제협력관 정용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철 △연구조정실장 조종제 △대외전략위원장 강태수 △세계지역연구센터장 양평섭 △선진경제실장 김규만 △신남방경제실장 박성일 △신북방경제실장 박정호 △무역통상실장 김영귀 △국제거시금융실

장 안성배

◆동양생명 <선임> 아시아대우 서혜연(준법감시인)

부음

▲권영애씨 별세, 류연행·신행(정의여자중 교사)·예행·창우(한화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부 상무)씨 모친상, 손인진(전북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이현(한국전산관리원 수석위원)·박용현(박용현비뇨기과 원장)씨 장모상, 문지윤씨 시모상 = 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7시, 02-3010-2000

▲김옥식씨 별세, 이근면(전 인사혁신처장)씨 모친상 = 7일, 삼성서울병원, 발

인 10일, 02-3410-3151

▲김윤삼씨 별세, 조용홍(서민금융진흥원 상임고문) 장인상=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박성복씨 별세, 신웅(로타리세이프티 대표)·신전(케이앤티엘 이사)·하영(가회동159대표)·하정(로타리세이프티 이사) 부친상, 석혜선(KBK특허법률사무소 부지사) 사부상, 강영훈(엔디존의원 원장)·김창석씨 장인상=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0일 오전 6시 30분, 02-3010-2292

▲정용석씨 별세, 문철(한국거래소 증권시스템팀장)·문화·문경씨 부친상, 유대상(에스원상향팀장) 장인상=8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0일, 02-2227-7594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이스타항공 인천지점 직원들이 'Best Growth' 상을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BEST GROWTH’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선정

이스타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한 ‘Best Growth(최고 성장)’ 항공사에 선정됐다.

이스타항공은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제2회 인천 에어포트 어워즈(Incheon Airport

Awards)에서 여객 50만 이상 달성 부문에서 전년 대비 여객 증가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에게 주는 ‘Best Growth’ 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인천공항 여객 수송객이 201만7833명으로 전년 대비 67만여 명 늘어나 49.7%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선영 기자 moon@



KT가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KT 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링’의 6기 결연식을 열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KT

KT,교육격차 해소 위한 멘토링 6기 결연식

KT는 6일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KT 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링’의 6기 결연식을 열고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도서산간 지역 초등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1대 1로 맺어 다양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을 하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4년 전남 신안군 임자도를 시작으로 백령도, 청학동, 교동도 등에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500여 명의 멘토와 멘티가 인연을 맺었다. 6기로 활동하는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멘토 70명과 이들 지역 초등학생 70명은 결연식에서 서약서와 직접 만든 팔찌를 교환하며 성실한 활동을 다짐했으며 다음날에는 도심형 VR 테마파크인 ‘브라이트(VRIGHT)’를 방문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SK네트웍스, 창립 65주년 맞아 나무 2000그루 심어

SK네트웍스가 창립 65주년을 맞아 기념 식수행사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8일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SK네트웍스는 최신원 회장, 박상규 사장 등 경영진과 SK매직 등 자회사를 포함한 650여 명의 구성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최 회장의 창립기념사와 포상식 등으로 간소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최신원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창업정신인 ‘도전과 개척정신’을 되살려,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100년 기업 SK네트웍스’를 만들어 가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SK네트웍스 구성원들은 2시간에 걸쳐 총 20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창립 65주년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식목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제공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노을공원이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생태공원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BBQ 치킨대학, 이천시청에 치킨 750마리 기부

BBQ 치킨대학이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 ‘올리브 치킨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외식산업 전문인력 육성 기관인 ‘치킨대학’ 임직원들이 최근 이천시청을 방문해 치킨 750마리를 ‘행복한 동행’ 사업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된 치킨은 치킨대학 임직원이 직접 조리했으며 제품은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2월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지구이 치킨이다. 조리된 750마리 치킨은 이천 지역 저소득층 가정과 복지시설에 배분됐다.

조태형 치킨대학 경영개발원 과장은 “BBQ 치킨대학에서는 이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치킨을 지원하는 ‘올리브 치킨릴레이’ 나눔 행사를 활발히 진행해 엘리엘동산, 성애원, 베데



BBQ 치킨대학이 3일 ‘올리브 치킨릴레이’ 행사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 지역에 치킨 750마리를 제공했다. 사진제공 제너시스BBQ

스다 등의 기관에 약 1억여 원 상당의 치킨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이천시청과 연계해 저소득층 가정 및 독거노인들에게 치킨 지원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치약도 TS가 만들면 다릅니다.

Trust
SINCE 2010



☑ 의약외품

TS착한치약
TS TOOTHPASTE

7無첨가

(SLS/SLES/파라벤/불소/트리클로산/사카린/CMIT·MIT)



TS착한치약

KONEX 코넥스상장법인
LISTED COMPANY

탈모닷컴 talmo.com

TS치약모델 이하늬





공병호의 독서산책

정진수 'SNS 마케팅 한 방에 따라잡기'

단 몇 개의 심심한 정보를 캐는 것만으로도 실용서는 가치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좋은 책만이 가치가 있다면, 실용서는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감성컴퍼니의 정진수 대표가 쓴 'SNS 마케팅 한 방에 따라잡기'는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효과를 거두는 방법을 다뤘다.

저자는 SNS 관련 분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자 직접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는 선두주자로, 'SNS 마케팅 한 방에 따라잡기'는 6년간 브랜드 컨설팅과 온라인 마케터로서의 그의 경험을 잘 담아 낸 실용서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5개 부분으로 나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되기 위해선 시작적으로 쉽게 읽혀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SNS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자극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한 줄의 카피가 가진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평자로서 한 가지 더 첨부하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일이 쉽도록 편집해 콘텐츠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와 달리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다. 해시태그를 한꺼번에 무려 30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블로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블로그보다 훨씬 더 많은 키워드를 등록해야 검색 결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김성희의 인문경영

CEO리더십연구소장



경영(經營)이란 무엇인가. 한 글자로 줄인다면 흥(興)이 아닐까 한다. 흥을 일으켜 조직 성과와 개인 성장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다. 흥(興) 자연 하나의 큰 정반을 여러 손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어진 자를 천거하고 공적이 있는 자를 들어 올린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다. 인재를 제대로 들어 올려야 조직의 흥이 올라간다.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많은 리더들이 조직의 사기와 몰입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진기묘기가 없을까 고심한다. 막상 시도해 봐도 별무신기 여서 낙망했다는 고백도 많다. 이때 내가 슬며시 제시하는 단어가 흥이다. 만사형통하려면 만사흥통하라는 의미에서다. 인재를 제대로 쓰면 회식, 회합 없이도, 목 놓아 호통 치지 않아도 흥은 절로 오르게 된다.

반대로 인재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 온갖

萬事興通이라야 만사형통 된다

선진 복지제도에 감언이설(甘言利說) 소동을 시도해도 흥은 나지 않는다. 공정한 인사 없이 부드러운 소통을 통해 올리는 사기(士氣)는 사기(詐欺)이다. 용인(用人)은 조직의 가장 확실한 소통근간이다. 나머지는 가질 뿐이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가. 이는 군주제의 신분제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나 다르지 않다.

공자는 "바른 사람을 굽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두면 백성은 따르고, 그 반대로 굽은 사람을 바른 사람 위에 두면 백성은 불복하게 돼 있다"[弊直錯枉, 則民服. 弊枉錯直, 則民不服]라고 말한다. 노나라 군주인 노애공(魯哀公)이 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르나"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이다.

법가사상의 집대성자 한비자(韓非子)는 다음의 사례를 소개한다. 월나라 왕 구천(勾踐)이 외출을 했다가 당당히 뽐내는 듯한 두꺼비를 보고 수레 위에서 경례를 하였다. 시종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 이유를 물었

다. 왕은 기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다음 해부터 스스로 제 목을 베어 왕에게 바치겠다는 자가 한 해에 10명이 넘었다. "두꺼비조차 기세가 있어 보이면 왕께서 예를 갖추시는데 하물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극진히 대하시겠는가" 하며 앞다뒀을 감하게 행동하더라는 이야기다. 한비자는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공정한 인사제도, 즉 상벌의 공정한 집행이다. 기본 내키는 대로 상을 주거나 형벌을 사면하지 말라. 공로가 있으면 비록 관계가 소원하거나 직급이 낮은 신하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주며,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면 비록 친척이나 총애하는 신하일지라도 마땅히 벌을 주라.

자재로움이 지나치면 법령이 서지 못하고, 위엄이 모자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해하게 된다. 한고조 유방은 선비의 것에 소변을 볼 정도로 오불관언이었지만 인사고과에 공정했기 때문에 항우를 이기고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다.

둘째, 적재적소 등용이다. 실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일반적으로 하달하고 미치지 못한다고 벌을 주거나, 장점을 놓치고 동당지 않는 직무를 떠맡기면 원망을 품게 된다. 요컨대 사람의 강점, 장점, 재능을 헤아려보고 그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사기가 오른다.

깊은 결을 따라 내야 하는 법이다. 진정한 소통은 인기전술이 아니라 인사전략이다. 만사형통하려면 만사흥통, 즉 인사부터 제대로 풀어야 한다. 인재를 제대로 들어 올려야 흥은 올라간다.

최근 청와대는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인사 후, "누구보다 빛나는 역할을 했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수차례 갔다 오고, 피감 기업인을 대상으로 수백만 원 짜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한다.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빛나는 역할'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실행할지 걱정스럽다. 기개 있는 두꺼비에게 절해 용사를 양성한 월나라 왕의 만사흥통 지혜가 절실하다.

공유되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

누어 소개했다.

블로그 마케팅과 SNS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는 블로그 마케팅이 상위 노출이라면, SNS 마케팅은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데 있다. SNS 마케팅이야말로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할수록 자신이 올리는 콘텐츠를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홍보 효과 또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팔로워들은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가 있어 스스로 팔로워가 된다. 따라서 SNS 마케팅에서 콘텐츠라는 부분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SNS에서 좋은 콘텐츠는 공유할 수가 있다. 좋은 콘텐츠에 대한 저자의 경험담은 이렇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감동, 유머, 쇼킹, 귀여움 등을 담은 콘텐츠를 SNS에서 변함없이 공유를 잘 하는 편이다." 저자의 의견처럼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자신이 잘 아는 전문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방법도 시류를 타지 않고 팔로워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서평자는 생각한 다.

SNS 채널의 절대 강자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반응이 좋은 콘텐츠는 페이스북에서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여 팔로워 수를 늘리는 일이다. 개인 계정과 함께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페이지는 광고를 활용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가능성이 10~15%에 지나지 않는다. 페이스북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글을 올리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시간대에 포스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개인 계정 이외에도 손쉽게 '+' 표시를 누르는 것만으로 몇 개의 계정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다. 그만큼 자신의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제공하는 책이다.

알쏭달쏭한 말

야부당(冶夫堂) 초우(草宇) 대중사

"야부당 초우 대중사가 26일 오전 경남 양산시 통도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72세, 세수 86세." 3월 27일 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한국어로 쓴 기사이긴 한데 이 기사를 일 반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야부당은 뭐고, 초우는 무엇이며, 대중사는 또 무슨 의미일까? 법랍은 무엇이며 세수는 또 뭐까?

한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이 삶 속에서 가

취운 우리의 문화에 대해 조금만 알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소식을 소식으로만 전하고 말을 말로써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옛사람들은 거의 다 이름과 함께 호를 가졌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면서 그 이름 안에 '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바람'을 담았다면, 호는 본인의 의지나 바람을 담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추사(秋史) 김정희(金

正喜) 선생의 경우, 正喜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지만 秋史라는 호는 가을 [秋] 날씨와 같은 냉철한 역사[史]와 문화 의식을 갖고 살자는 의미에서 스스로 붙인 것이다.

스님들은 불문(佛門)에 든 후에는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새로 짓는다. 그 이름을 불법(佛法) 세계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법명(法名)'이라고 한다. 대부분 스승께서 지어준다. '草宇'라고 쓰는 초우 대중사의 법명에는 아마도 넓은 우주에서 풀 한 포기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

이 법명을 받은 초우 스님은 자신의 의지나 혹은 다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또 하나의 이름으로써 호를 지었으니 그것이 바로 '冶夫堂'이라는 법호(法號)이다. '도야할야(治)', '사나이 부(夫)', '늘 도야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호로 생각된다.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한 포기 풀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살면서도 도야를 게을리하지 않은 冶夫堂 草宇 스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자모 '두 달간 아무도 몰랐던' 증평 아파트 모녀 사망 "여전한 복지死角地帶"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과 사별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네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다.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이번 일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9일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한 아파트 4층 A 씨의 집 안방에 A 씨와 딸이 침대에 누운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 씨 모녀의 사망은 관리비 연체가 지속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A 씨는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네터즌은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벌어졌다. 연체증 복지시스템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아이디 'kind****'는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만 돼 있어도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통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웃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sysi****'는 "기본소득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 선순환도 이뤄질 수 있고 '송파 세 모녀 사건'이나 이번 '증평 모녀 사건'처럼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suri****'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은 시급하다. 다만 정부의 정책 개선과 별개로 본인들도 먹고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lly0403@

봄

소중한 분께 "수건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



세면타올 3P Set



세면타올 5P Set



타올 종합 7P Set



아이타올(주)

데코타올(세면/바스타올)



www.itowel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데스크칼럼

김 남 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가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하겠다.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전 4년간 ‘안정’을 우선하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

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4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 총재가 되면서 밝힌 취임사의 골자다. 통화정책과 경제현안, 내부경영 등 세 분야에 대한 그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디 그의 이같은 의지가 4년 후 현실로 이뤄지길 바란다. 그의 성공은 개인뿐만 아니라 한은 아니, 한국 경제의 성공과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몇 자 적어 본다.

우선 아쉽게도 그의 지난 4년을 바라보는 시선은 굵지 않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조차 그의 연임에 대해 ‘말 잘 듣는

‘이주열 2기’ 韓銀에 바란다

총재를 선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을 정도다.

그런 점에서 2014년 4월 초 그의 첫 임기 출발 당시 썼던 ‘이주열 총재, 소통 친절보단 권위’라는 글을 다시 옮겨 적고자 한다.

당시 글 중 일부를 발췌하면, “한은이 소통 대상으로 해야 할 주체는 시장은 물론 정부도 포함해 다양할 것이다. 이들과의 소통은 한은 스스로 권위를 갖출 때 비로소 원활히 이뤄진다. 이를 위한 방식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다.

통화정책과 관련해 그간 수없이 많은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단 한 번의 유감 표시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그는 2기 취임식 후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에서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월호 사고와 그 파장을 들며 “시그널을 주고 내렸는데 두 고두고 인상감박이 커고 인하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해명하는 데 그쳤다.

인상감박이를 켜고 인하했다는 게 비판의 골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같은 그의

언급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당시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빚내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소위 초이노믹스와 최 부총리의 “착하면 착”에 응답해 갑작스런 인화가 계속됐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 기조 속에서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는 145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정부와 한은의 공동된 목표다. 다만 정부는 성장에, 한은은 안정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며 한은의 독립성을 설명한 박승 전 한은 총재의 언급을 곁집어 볼 필요도 없다. 가계부채 때문에 통화정책의 발목이 잡혔다면 이미 그간의 통화정책은 안정이라는 목표를 훼손한 것이다.

이 총재 스스로 좀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지난 4년은 작전 김중수 총재의 개혁을 되돌림하는 시간이었다. 김 전 총재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한은을 흔들려 놨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진 부작용이 컸다는 게 한은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었다는 점에서 이 총재 스스로도 밝힌

‘안정’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렇잖아도 보수적인 한은의 문화를 더 보수적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가급적 우리끼리 조용히 잘...’이라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무던진 팬, 두루뭇술한 보고서, 국민소통 없이 공부방 같은 한은”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산적 논쟁을 자신 있게 펼쳐 달라”는 주문까지 나왔다.

권한의 위임 등 제도와 관행을 고쳐 나가겠다는 내부경영 부문에서도 핵심은 비켜 간 게 아닌가 싶다. 이 총재 연임 직후 실시한 한은 노조 설문조사에서 내부경영과 관련한 부정적 응답이 10명 중 7명(67%)에 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조만간 차기 총재 몫으로 미뤄던 임원과 국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가 말한 “변화와 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kimnh21c@

구성현의 약자地꼐

정책사회부 차장



선거 앞, 또 부동산·개발공약

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마다 온도차는 있지만, 유력 후보들이 연일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 분위기도 술술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여는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개발 공약도 고개를 들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껏 당선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놓고 당선 후에는 이를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개발 공약만 하더라도 신공항 건설, 도로·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부터 신도시 및 주거단지 조성, 관광 인프라 개발, 산업특화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 지역 밀착형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 차원의 규제 정책을 펴고,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이는 SOC 투자 감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유권자들은 국민의식이 많이 성숙해지며 과거의 지역과 정당만 쫓던 선거에서 벗어나 정책을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이 내놓는 지역개발 공약들은 과거 선거 때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재원 조달이나 지역별 이해관계 해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마저도 재탕 삼탕이 많고 허울뿐인 말잔치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은 부동산·개발 정책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내놓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자신의 재산

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어느 공약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2006년, 2010년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준다는 개발 공약을 외면하는 유권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02년에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뉴타운 건설과 청계천 복원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워 재미를 봤다. 당시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이 22.5%나 올랐다. 그 뒤 2006년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오세훈 전 시장도 재개발 및 뉴타운 공약을 통째로 물려받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이 계획은 대거 수정·보류됐다.

이런 예들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이런 개발 정책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물론 지역 발전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공약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지역개발 사업이 실행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고 생활의 편의성은 향상된다.

또 개발에 따른 수혜를 누리 땅이나 주택, 건물 등 부동산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때 나온 지역개발 공약이 이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일수록 더욱 그렇다. 때문에 이 같은 공약은 무엇보다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지역의 미래와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여러 비판에도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해안이 필요할 때다.

carlovet@

객석

진 세 림 JSL COLOR IN 대표



아이들이 주는 컬러 메시지

일상에서 눈으로 색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색에 내면의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특히 어른에 비해 경험이 적은 아이들이 표현한 색에서는 성향이나 직접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노란색’ 하면 성인들은 대체로 개나리, 바나나 등을 언급하는 데 비해 아이들의 답변은 기상천외하다. “어제 TV에서 본 공주의 옷이 부러웠다”,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재밌었던 기분” 등 기억이나 경험에 의존한 ‘사물’이 아닌 ‘감정’을 이야기하는 식이다.

따뜻한 색을 즐겨 쓰는 아이들은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편이다. 반면, 차가운 색을 즐겨 쓰는 아이들은 자제력이 높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보다는 혼자서 해내려는 독립심이 강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색채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빨강을 가지고도 어제는 엄마에 대한 ‘분노’로 스케치북을 메우고, 오늘은 ‘사랑의 색’이라며 빨강을 쓰는 경

우를 자주 보게 된다.

흔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알록달록한 색상을 다양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색상이 많으면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다.

아이가 선택한 색만으로 정답에 가까운 심리 분석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색을 받아들이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자세는 성인이 된 후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때 그대로 드러나기도 한다. 부모가 직접 어떤 색은 별로라고 가르치거나 아이의 성별이나 연령, 종교 등을 근거로 어떤 색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에 대해 편협한 인상을 심은 경우 그 급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 남는다.

이는 단순히 어떤 색상의 옷을 입고 립스틱을 바를 것이냐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넓은 범주까지 도전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삶의 자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주는 컬러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다.

기자수첩

정 용 욱 정치경제부/dragon@



空轉·空轉... ‘데자뷔’ 국회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여부 결정,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 등 막대한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만 내놓고 보면 유례없이 심각한 ‘무방비 국회’일지 모르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회 상황을 지켜봐 온 여야 관계자와 국회 출입기자들에겐 지금 사태가 ‘무감각’할 만큼 익숙하다. 이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1월부터 지금까지 임시국회와 공전, 그리고 막판 극적 타협이라는 뻔한 공식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이 같이 반복된 상황은 정치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신선함은커녕 기시감(既視感)만 불려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국회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추경안 전망에 대해 “결국 막판까

지 야당과 협의하지 않다가 (야당에) 더 중요한 개헌안 처리와 ‘딜(Deal, 거래)’을 하지 않겠느냐”며 “원내에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여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모든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을 심의하고 꾸짖지만, 정작 자신들의 운영에는 그 어느 곳보다 관대하다. 임시국회가 연장전에 연장전을 거듭할수록 국회 운영비도 한없이 들어가고 있다.

최근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거부 사유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그저 국회가 정해진 운영 기간 내에 할 일을 하고, 다툼이 아닌 정치로 여야 갈등을 풀어내는 것이 “정치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길일 것이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논설실 (02)799-6701 기업금융부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산업1부 (02)799-2648 국제경제부 (02)799-2643	정책사회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etoday.co.kr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
봅슬레이 은메달

초판 한정
사인본
저자 인세
전액 기부

우린 팀원

Team one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만들어낸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용 총감독의 리더십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적이라는 말에 수긍할 수 없다.
우리가 이룬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오체투지’였다!

꿈 이 현 실 이 되 는 도 전

화제의 시간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 봅슬레이 은메달

초판 한정 사인본 저자 인세 전액 기부

우린 팀원

이용 지음 Team one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기적을 만들어낸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용 총감독의 리더십

이용 지음 | 17,000원



디스플레이 물량공세 펼치는 中… “韓, 초격차 기술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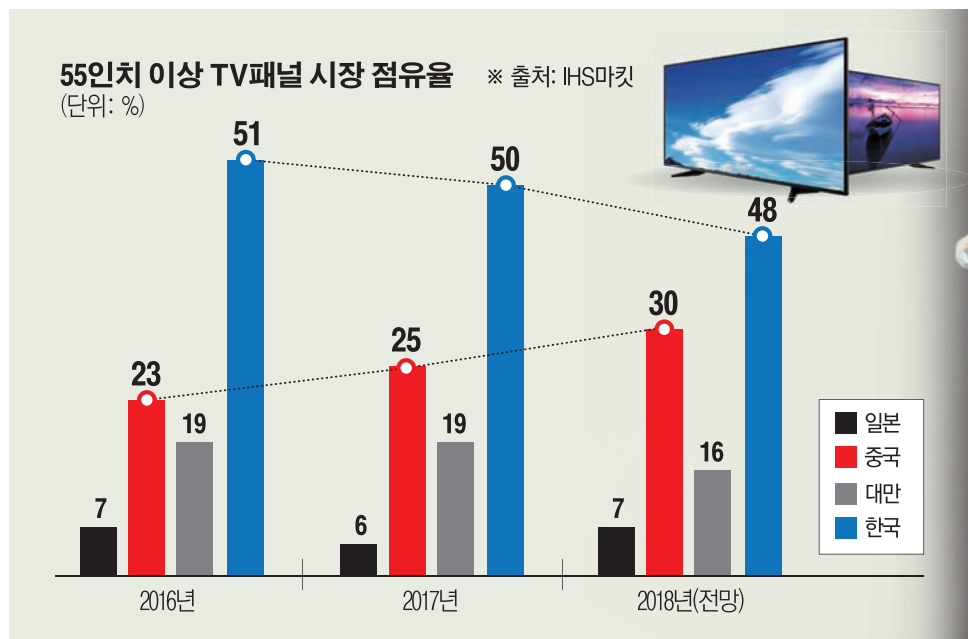
초대형 TV 시장 '대륙굴기' 가속화
대수 기준, 지난해 판매율 한국 추월
설비투자 규모 늘리며 사업 다각화

IHS마켓 ‘韓 디스플레이 콘퍼런스’ “8K·차세대 기술로 따돌려야” 제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65인치 이상의 초대형이 대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대국굴기(大國崛起)'가 가속화돼 본격적으로 한국 업체들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최근 서울 옐타워에서 '2018년 한국 디스플레이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정용성 IHS마킷 상무는 “올해 처음으로 65인치 종이 32인치 존보다 커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HS마킷은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32인치 이하, 45~48인치가 각각 전년 대비 11%, 78%까지 성장할지 하려는 반면 65인치 이상은 48%까지 성장하는 등 대형 디스플레이의 대체화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중국은 9인치 이상 IT 패널을 포함한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대수 기준으로 1위(31%)를 차지했다. 전년(26%)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16년 중국과 10%포인트 격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한국 디스플레이 콘퍼런스'에서 정윤성 IHS마켓 상무가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IHS마켓

차인 36%로 1위였으나 2017년 30% 점유율로 2위로 하락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지난해 41%, 중국은 27%를 차지했지만, 올해 한국이 39%, 중국이 30%로 예상돼 매년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한국이 생산을 줄인 노트북, 태블릿과 모니터 패널 물량도 가져갔다.

TV패널(55인치 이상)에서도 중국은 2016년 23%에서 2018년 30%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

다. 반면 한국은 2016년 51%에서 올해 48%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상무는 “TV뿐만 아니라 IT패널들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널 생산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 과거와 수준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올해 중국 내 대규모 (8세대 이상) 공장에서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 생산을 시작하는 만큼 공급 과잉이 본격화하면서 물량 공세로 글로벌 대형 LCD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BOE 10.5세대 팹, CEC 그룹의 2개 8.5세대 팹이 2분기 가동을 시작하면 65인치와 75인치 패널 생산량이 급증하게 된다.

중국은 대형 LCD 투자 규모도 한국을 꺾고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TFT 규모에서도 중국은 2018년 30%에서 2023년 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 투자 계획이 확정된 곳만 계산해도 2022년까지 중국이 19개의 공장이 건립될 예정이다. AMOLED 규모도 2016년 12%에서 2023년 38%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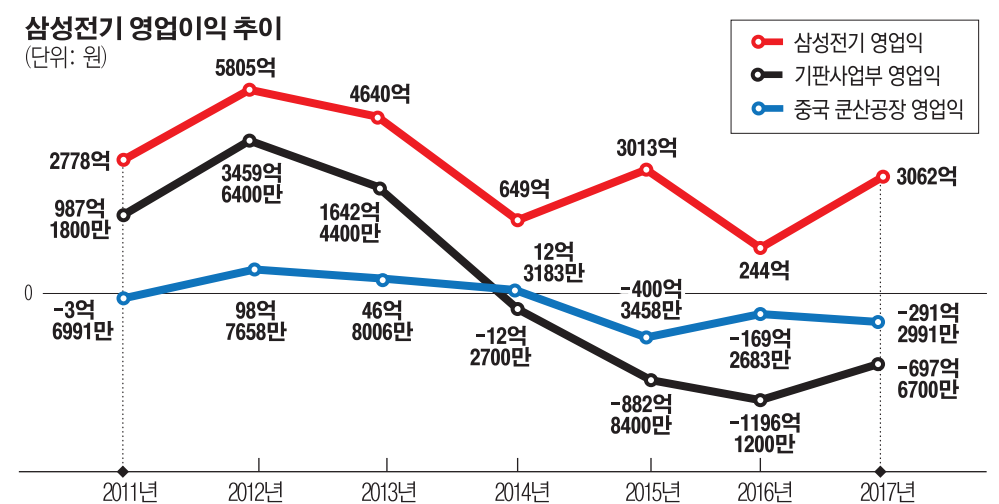
중국 디스플레이의 3대 업체로는 BOE, 차이나

스타, CSOT를 짊을 수 있다. BOE는 현재 의료는 물론 생활가전,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등에 쓰이는 디스플레이까지 사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건강 데이터 추적 등 스마트 헬스케어를 분야 사업 확장에 진행 중이다. 중국 로컬업체 중 톱으로 꼽히는 차이나스타도 32인치대 디스플레이를 줄이고 55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에 캐파 확장에 힘쓰고 있다. 또 LTPS로 모바일 노트북 분야도 강화하고 있다. CSOT는 옥사이드(Oxide) TFT 공정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정 상무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조력차를 벌일 수 있는 전략으로 8K 전환,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등 기술력을 꼽았다. 소비자들은 크고 해상도 높은 TV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의 8K 패널 기술이 미흡한 사이 시장 트렌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LG 디스플레이의 롤러블 OLED, 삼성전자의 QD(퀀텀닷) OLED, 마이크로LED 등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빨리 시장에 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상무는 중국이 디스플레이 사업에 집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라이벌인 미국과 비교해 국토 균형 발전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하이테크 유치를 기반으로 거대 거점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또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 기반의 자신감으로 막대한 투자로 경쟁력을 없앤 후 자국 시장의 점유율 모두 갖겠다는 의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의 리더십을 다 가져가면 그다음은 결국 세트사업이 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위기는 디스플레이만의 위기가 아니고 대한민국 세트 산업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삼성전기 글로벌 기판사업 허브 中 淸山법인, 올해는 ‘三災’ 털까

3년간 영업적자 딛고 '실적 개선' 기대

삼성전기의 기관사업 허브로 꼽히는 중국 kun 산법인이 기관사업 부진의 여파로 해외사업장 중 3년간 유독 큰 영업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중국 Kunshan 법인은 지난해 291억 2991만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과 2015년에도 각각 169억2683만 원, 400억 3458만 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중국 쿤산법인은 삼성전기가 글로벌 가판 사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세운 삼성전기의 4번째 중국 생산법인이다. 쿤산법인은 2009년 말 대만업체 J3의 중국 가판 생산법인 '유니캡' 자산을 인수해 설립했다. 삼성전기는 쿤산법인의 생산 능력 확충 등을 위해 2013년 1088억 원 증자를 승인했으며, 2016년에도 쿤산법인에 생산라인 정비와 신규 라인 증설을 위한 증자를 진행한 바 있다. 쿤산법인은 현재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지는 HDI(스마트폰용 메인 기판)를 생산하는 법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쿠산법인의 영업 적자 지속에 대해 기판사업의 부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쿠산 법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업이익을 내왔지만 삼성전기의 기판사업부가 힘들어진 2015년을 기점으로 함께 영업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기의 HDI 사업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사업과 함께 기판사업부를 지탱하고 있는 큰 축이었다. 스마트폰 시장과 함께 성장을 거듭한 분야이지만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주요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몇 년간

삼성전기의 실적을 발목 잡아왔다.

삼성전기는 기존 HDI사업에서 기술 차별화 요인이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업 적자가 이어지자, HDI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고밀도 다층 기판인 SLP로 전환을 가속 중이다. SLP는 적층 구조이다 보니 기존 HDI보다 크기가 작으면서도 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에 SLP가 첫 탑재됐다.

그러나 HDI 사업의 효율화나 SLP, RF PCB(경연성 인쇄 회로기판) 등 차세대 제품의 신규 고객 확보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SLP를 사용하면 HDI 면적을 기존보다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어 배터리 공간 확보에 유리하지만, 아직 양산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부문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관사업의 전방산업으로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산업이 있고, 후방산업으로는 소재산업과 도금과 인쇄 같은 설비산업이 있는데 연관 사업의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아 시장의 어려움은 지속할 전망이다.

쿤산과 함께 기반 사업을 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은 카메라모듈과 RF PCB 기판을 생산하고 있어 쿤산법인과 비교해 상황이 낮지만, 쿤산법인은 HDI판 생산하고 있어 당분간 영업적자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아직 군산법인의 SLP
기판 양산 라인 구축을 위한 투자 계획은 정해
지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터 기판부문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산법인의
상황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KYOBO 교보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7-04981호(2017.11.29~2018.11.14)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 전 학원업종 10% 청구할인
교보문고, 핫트랙스,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win.K

KYOBO 교보증권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등
CU,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3

주소 등
정보입력

4

신분증 촬영

5

계좌인증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매매 시 0.014%의 주식매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승하고 큐레이터 설명듣고... 피곤하면 라운지에서 茶 한잔

자동차 3社3色 전용 전시장

고객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전용 전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 전시부터 시승, 브랜드 체험까지 가능한 전용 전시장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기아차 THE K9, 현대차 제네시스, 그리고 지프의 전용 전시장을 소개한다.

◇기아차, 고품격 전용 전시관 '살롱 드 K9' = 기아차는 4일 서울 강남에 THE K9을 위한 독립형 전용 전시관 살롱 드 K9(Salon de K9)을 개관했다.

'살롱 드 K9'은 차량 전시부터 시승, 브랜드 체험에 이르기까지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THE K9'에 관한 모든 것을 갖춘 고품격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기아차의 첫 독립형 전용 전시관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량부터 브랜드 콘텐츠까지 THE K9만을 주제로 구성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고객들에게 상품성뿐만 아니라 THE K9의 감성, 가치 그리고 철학을 전달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한 공간"이라고 말했다.

총 560㎡(약 170평) 규모로 2층으로 구성된 '살롱 드 K9'의 실내는 △블랙 위주의 모노톤 컬러 적용 및 금속 재질의 디테일 처리 △1층과 2층이 뚫려 있는 개방형 구조 채택 등을 통해 THE K9의 위엄과 웅장함, 고급감이 느껴지도록 했다.

기아차는 '살롱 드 K9'을 통해 THE K9의 우수한 상품성과 가치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향후 클래식 설명회, 티 클래스 등 THE K9 고객에 걸맞은 수준 높은 고객 초청 행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살롱 드 K9은 THE K9이 가진 품격과 그에 맞는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공간"이라며 "많은 고객이 이곳에서 상품, 브랜드는 물론 THE K9이 탄생하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 '제네시스를 위한, 제네시스에 의한' 제네시스 강남 =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1월 첫 독립형 전용 전시관인 제네시스 강남을 개관했다.

'제네시스 강남'은 제네시스 최초의 독립형 전용 전시관이다. 이곳에서 EQ900, G80, G70 등 제네시스 전 차종의 다양한 컬러 모델을 직접 보고 주행해볼 수 있다.

2층 건물 총 1293.6㎡(약 392평) 규모로 조성된 '제네시스 강남'은 방문객들에게 전체 구매 경험을 안내해주는 프로세스 디렉터와 상품 및 시승 체험을 제공하는 전문 큐레이터가 고객을 1대 1로 전담



기아자동차측은 4일 서울 강남에 차량 전시부터 시승, 브랜드 체험에 이르기까지 기아차 플래그십 세단 'THE K9'에 관한 모든 것을 갖춘 고품격의 독립형 전용 전시관 '살롱 드 K9(Salon de K9)'을 개관했다.

기아 '살롱 드 K9'

'THE K9' 감성·가치 전달 특별 공간
클래식 설명회 등 고객 초청 행사 추진

해 응대한다.

'제네시스 강남'에서는 실제 차량 전시뿐 아니라 제네시스 라인업의 모든 외장 컬러집과 우드 및 가죽 내장재 실물을 직접 조합해볼 수 있도록 차체와 가죽 견본을 한쪽 벽면에 전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체험할 수 있는 최초의 독립형 전시관 '제네시스 강남'은 고객들에게 제네시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전문 큐레이터의 더욱 심도 있고 개인적인 1대 1 고객 전담 응대를 통해 방문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프, 강서 전시장 이어 인천 전용 전시장 개관 = 지프는 1월 기존 강서 전시장을 확장 이전해 서울 영창동에 지프 전용 강서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곳은 서울 서부 지역 딜러사인 프리마 모터스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지프 전용 전시장이다.

연면적 530㎡ 규모의 지프 전용 전시장인 강서 전시장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지프 모델들과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지프의 아이콘인 랭글러(Wrangler) 존이 별도로 마련돼 지프 브랜드만의 오프로드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 외에도 고객 라운지와 딜리버리 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대 '제네시스 강남'

EQ900·G80 소 차종 직접 주행 가능
외장 컬러집·내장재 실물 조합 체험

지프는 3월 두 번째 전용 전시관을 인천에 오픈했다. 총면적 1435㎡, 지상 4층 규모의 인천 지프 전용 전시장은 1, 2층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0대 이상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다. 고객들은 1:1 컨설팅



지프(Jeep)가 지난달 22일 인천 지역에 지프 전용 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하고 사전예약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프, 강서 이어 인천 전시관 오픈

'1대 1 컨설팅 존'에서 맞춤 서비스
딜리버리 존 등 편의시설도 마련

팅 존에서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라운지, 커피바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 출고 고객들의 편의를 더욱 높여주는 딜리버리 존(Delivery Zone)과 지프의 대표 차량을 만날

수 있는 히어로 카 존(Hero Car Zone)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블로 로소 FCA코리아 사장은 "지프는 다이내믹한 마케팅 활동과 지프 전용 전시장 확충을 통해 고객들에게 지프만의 헤리티지와 브랜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SUV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지프 브랜드에 주력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독보적인 SUV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중립적·객관적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배려합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상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미트론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원/건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타보니 지프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 하이'

양증맞은 디자인에 묵직한 힘 '반전매력'

최고 출력 175마력·9단 자동 변속
소형차지만 내부 공간 넓어 '편안'
답답한 '내비' 車 '소음'은 개선 필요



지프의 소형 SUV, 레니게이드 라인업 중 2.4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 하이'는 '작은 거인'이다. 작지만 튼튼하고 잘 나간다. 작게나마 도심 속에서 오프로더의 감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일단 디자인이 눈에 들어온다. '톡톡' 튀는 느낌이다. 기본적으로 다부진 체형이지만, 양증맞고 귀엽다. 지프 특유의 직선과 각을 살린 선이 굵은 디자인은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킬 만하다. 특히 프론트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돋보인다. 큼직한 프론트 그릴 양끝에 자리한 원형의 헤드라이트와 함께 전면 디자인의 불륨감이 살아있다. 실내 디자인은 무난하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차분히 정리돼 있다. 조수석 대시보드의 보조 손잡이를 적용한 점은 눈에 띈다.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기 위해 센터페시아 상단에 'Since 1941'를 새긴 것도 인상적이다. 내부 공간은 소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꽤 넓은 편이다. 여유 있는 헤드룸과 높은 전고는 만족스러운 개방감을 준다. 전반적으로 실내의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웠지만 답답한 내비게이션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시동을 켜고 액셀을 밟았다. 레니게이드 론지

튜드 2.4 하이는 '2.4ℓ 멀티에어2(MultiAir2) 타이거샤크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 최고 출력 175마력에 최대 토크 23.5kg·m의 토크를 낸다. 여기에 9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돼 전론으로 출력을 전한다. 주행성능은 밝으면 밝는 대로 쪽쪽 잘 나가진 않으나 기본에 충실한 편이다. 핸들의 경우 반응이 빨라 코너링에서도 안정감이 느껴진다. 다만 가솔린 차임에도 디젤차로 착각할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상당했다. 가속할 때 잔잔한 음악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레니게이드 론지튜드 2.4 하이의 공인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0km/ℓ이며 도심과 고속은 각각 8.9km/ℓ와 11.9km/ℓ다. 1460kg의 공차 중량을 감안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낮은 연비는 아쉽다. 그리고 운전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 운전자의 경우 묵직한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프만의 감성이 가려져 주는 매력은 젊은 구매층의 지갑을 열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광호 기자 khlee@

高유가·低환율 접착제... 잘나가던 石化업계 발목 잡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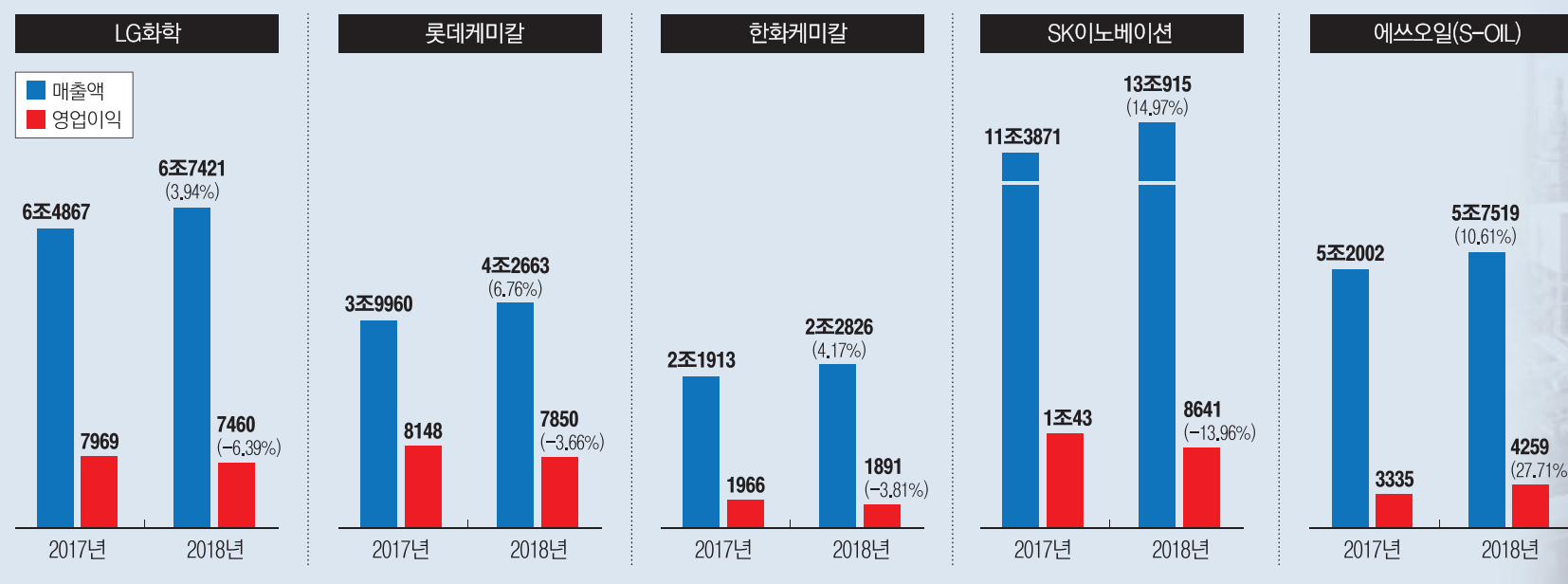
석화·정유, 1Q 실적 희비

지난해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는 석유화학업계가 올해 1분기 다소 부진한 실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다. 다만, 같은 원유를 사용하는 정유업계의 경우 1분기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

환율하락·원자재값 상승 영업익 '주춤'
LG화학 6.39%·롯데케미칼 3.66% ↓
폴리에틸렌 생산설비 일부 가동을 낮춰

정유업계, 정제마진 개선 실적 회복세
에스오일 27.71%·SK이노베 10% ↑
호주·카타르 등 수입국 다변화 노력중

석유화학·정유업계 2018년 1분기 실적 컨센서스 (단위: 억 원, 괄호 안은 증감률)



◇LG화학·롯데케미칼 등 영업이익 감소... "환율·원자재가격 등 원인" = 9일 애플에이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하락했다. LG화학의 경우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7421억 원, 7460억 원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오른 반면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39%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의 예상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2663억 원, 7850억 원으로 LG화학에 마찬가지로 매출액은 6.76%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3.66% 하락했다. 한화케미칼의 매출액·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조2826억 원(4.17%), 1966억 원(△3.81%)이며 SK이노베이션의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11조3871억 원

(14.97%), 1조43억 원(△13.96%)이다.

석화업계의 1분기 실적 원인으로 환율 하락과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료 구매 비용 상승이 지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환율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때 석유화학 수출은 0.3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도 원·달러 1분기 환율은 2월 8일 1달러당 최고 1091.00원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4월 2일 최저치인 1달러당 1055.50원을 기록했다.

석유화학업계의 원재료인 국제 유가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NCC(납사크래킹센

터)를 지닌 업체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악재로 작용한다. '석유화학업계의 쌀'인 에틸렌이 NCC에서 분해된 납사로 만들어지며, 납사는 원유에서 정제되기 때문이다. 납사 가격은 유가와 연동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국내 NCC 업체들의 원가구조는 원재료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상회하며, 납사가 원재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폴리에틸렌(PE)을 생산하는 롯데케미칼은 높은 국제 유가로 인해 에틸렌 가격이 급등하면서 PE에서 역마진이 발생해 대산공장의 LLDPE 설비 가동률을 4월부터 낮춰 가동할 계획이다.

◇정유업계, 유가 상승으로 호실적 전망 = 유가 상승에 석화업계와 정유업계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에이처치에 따른 에스오일(S-OIL)의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5조7519억 원과 3335억 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10.61%와 27.71% 상승했다. 화학 부문에서 다소 감소세를 보인 SK이노베이션도 정제마진의 개선으로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5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석화업계와 대조되는 호실적을 거둔 정유업계지만 국제 유가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원유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이란산 콘덴세이트(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원유 도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대외 전략이 허버트 맥매

스터에서 존 볼턴으로 옮겨가면서 초강경 입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국내 정유업계가 공급처 불안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료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처음으로 노르웨이산 콘덴세이트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SK에너지와 한화토탈도 호주, 카타르, 적도기니 등 이란의 대안 공급처를 찾고 있다. 이탄석 에너지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란의 수급 불안정성, 제품의 품질과 가격, 정제방식 등 다양한 경제적·기술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류정훈 기자 jungh216@

〈세계 석유화학 콘퍼런스〉

WPC “글로벌 화학산업, 슈퍼 사이클 초기 단계... 2022년까지 지속”

올해 1분기 석유화학업계가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 기대는 여전한 모습이다. 앞으로 상당 기간 석유화학업계의 '슈퍼사이클(장기호황)'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 휴스턴에서 진행된 2018 세계 석유화학 콘퍼런스(WPC)에서는 글로벌 화학산업을 현재 상황을 슈퍼 사이클의 초기 단계로 진단하고, 이 사이클이 2022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WPC는 산업정보 분석업체 IHS가 휴스턴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석유화학 콘퍼런스다.

부족한 설비 증설이 장기호황 이끌것
원료가격 안정화·수요 증가도 한몫

美 ECC 증설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유업계 도전·中 시설 증설 부담으로

WPC에서는 부족한 설비 증설이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이유라고 지목하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원료가격 △수요 증가 △M&A 증가 등이 슈퍼사이클을 이끌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WPC는 원재

료 가격 하락으로 시작된 원가 사이클은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공급 부족에 의한 수급 사이클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이클이 이어짐으로써 장기 호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려가 컸던 미국 ECC(에탄분해시설) 증설 영향도 국내 석유화학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ECC 증설에 나서더라도 인프라 부족으로 에틸렌을 아시아로 직접 수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후 메리츠중공업 연구원은 "미국 ECC 증설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나, 북미-아시아 간 폴리에틸렌(PE) 물동량 증가는 제한적"이라면서

"미국 PE 물량이 아시아 역내로 유입되기에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틸렌의 다운스트림 플랜트인 PE, MEG보다 ECC의 증설이 선행했기 때문에 향후 PE, MEG 플랜트가 완공되면서 다운스트림 공정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화학산업 진출과 중국의 시설 증설은 NCC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에스오일과 GS칼텍스는 석유화학산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에스오일은 폴리프로필렌(PP) 기준으로 40만t, GS칼텍스는 상업 가동을 본격화하는 2022년 폴리에틸렌 50만t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준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정유사들의 진출이 당장 NCC들을 위협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정유사들이 석유화학 분야에 계속 진출할 경우 NCC는 원자재 수급과 제품 경쟁력이라는 이중고를 떠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의 파라자일렌(PX) 시설 신·증설에 따른 수급 악화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중간원료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약 90%에 달해 중국의 PX 신·증설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2016년 PX 생산량은 930만t이었는데 2025년까지 약 4000만t을 생산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4월 5일 청명 4월 6일 한식

35년 역사의 국내 최대 명품 추모공원 서울에서 불과 50분거리의 명당, 그 명당의 중심!



2016년 실제 공원 전경사진

진달래
메모리얼파크
Jindalae Memorial Park

명성황후가 나라의 안위를 빌던 국망산 줄기 금곡골 꽃 속의 영원한 안식처!

모지 하나에 부모님은 매장·합장, 후손은 봉안!



신단지 전경



① 복합묘 (봉분형 2+16)



② 매장묘 (합장형)



③ 매장묘 (단장상분형)



④ 평장 (6, 8, 12위)



⑤ 봉안묘 (8, 16, 24, 32위)

진달래메모리얼파크가 명당중의 명당인 이유!

- ① 최고 명당의 자부심 35년 역사의 국내 최고 공인명당! 명성황후가 나라의 안위를 빌던 國望山 줄기에서 위치!
- ② 吉地 많은 추모공원 16대에 걸친 황제와 대왕릉이 출현할 큰 유력명당 등 수많은 대소명당이 산재-대왕릉의 명당-대왕릉의 명당-
- ③ 고품격 책임관리 35년 역사가 검증하는 공인명당의 노후유지 책임관리 System으로 영구적인 고품격 관리 실현
- ④ 아름다운 디자인 85000㎡ 국제 품격 인증 명당의 대왕릉과도 어울리는 최고급 석물 사용
- ⑤ 사통팔달의 입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여주고속에서 100분 가량 상남 경포단간 자동차전용도로 공사 중(2018년 개통예정)
- ⑥ 전 묘역이 마사토 이렇다한 산에 둘러싸인 곳. 양자버튼 명당에서 한 가운에 자리잡은 곳, 전 묘역이 마사토로 형성된 천혜의 공인명당
- ⑦ 단지 내 넓은 도로 타 추모공원은 멀리 온가족이 찾는 정묘공원(17개 차장이동시 불편함까지 배려한 넓은 도로로)
- ⑧ 완벽한 배수시설 공인명당도 완벽한 배수시설과 과학적 설계로 많은 목욕도 묘지 유실 등의 염려가 없어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성묘
- ⑨ 온가족의 휴양지 진달래메모리얼파크 주변에 단풍길, 송추호, 뚝섬온천, 농담 한우마을 등이 있어 천혜의 Premium 자연휴양지!

진달래메모리얼파크 현장으로 오십시오

내 조상을 모신다는 사명감으로 묘지 석물 하나 하나에 정인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직접 방문하시어 33년 전통의 역사만큼 현장요원의 친절함 안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묘지 석물들을 살펴보고 꼼꼼하게 결정하십시오.



재단법인
진달래문화재단
Jindalae Cultural Foundation

분양
문의

1522-4408

펫팜族 “반려견도 가족” 아낌없이 쓴다

반려동물 전성시대

#1인 가구 5년 차인 30대 후반의 싱글남 직장인 김 모씨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혼족 생활 초반만 해도 '나 홀로'라는 자유로움을 한껏 즐겼지만 이내 아무도 맞아주는 이 없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드는 외로움에 반려견을 분양받게 됐다. 육아 초기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매달 20만 원 안팎의 지출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됐다. 하지만 반려견과 함께 3년여가 흐른 지금은 반려견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가족이 됐고 어느덧 반려견은 두 마리로 늘었다.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 급성장
지난해 반려동물 870만 마리 시장 규모 2.3배
유모차·자동화장실 등 프리미엄 제품 영역 확대

고양이 전용 자동화장실 '리터 로봇'.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인 가구의 성장세와 맞물려 급성장하고 있다. 1990년만 해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9.0%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27.2%로 4분의 1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팜(pet+family)'족은 1000만 명을 넘고 반려동물 수는 작년 기준 870만여 마리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사료와 동물관련 용품, 보험, 수의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2011년 1조443억 원에서 2014년 1조5684억 원으로 연평균 14.5% 증가했고 작년에는 2조3322억 원으로 성장했다. 2022년까지 연평균 10%대 성장률을 기록해 4조 원을 웃돌고 2027년에는 6조 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관측한다. 반려동물의 웰빙을 위한 주인의 씀씀이가 커져 사료와 간식, 반려동물용 유모차 등 관련 상품들이 프리미엄화

되는 등 영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어서다.

위메프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 매출액은 2015년 대비 지난해에 69% 늘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상품 중 사료와 간식이 8개를 차지했으며 특히 화학 첨가물이나 인공색소, 인공첨가물 등을 넣지 않은 프리미엄 수제 간식은 전년 대비 105%, 프리미엄 사료는 207% 증가했다.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 영역의 범위는 화장실, 미용 용품, 서비스로까지 확대됐다. 고양이가 용변을 보면 센서로 감지해 자동으로 청소까지 해주는 고양이 전용 자동화장실 '리터 로봇' (85만 원), 프랑스 고양이 가구 브랜드 '미우파리'의 고양이 집 (49만 원), 애견 유모차 브랜드 '이비야'의 유모차 (35만 원), '오스타' 전문가용 애견 이발기 (23만 원) 등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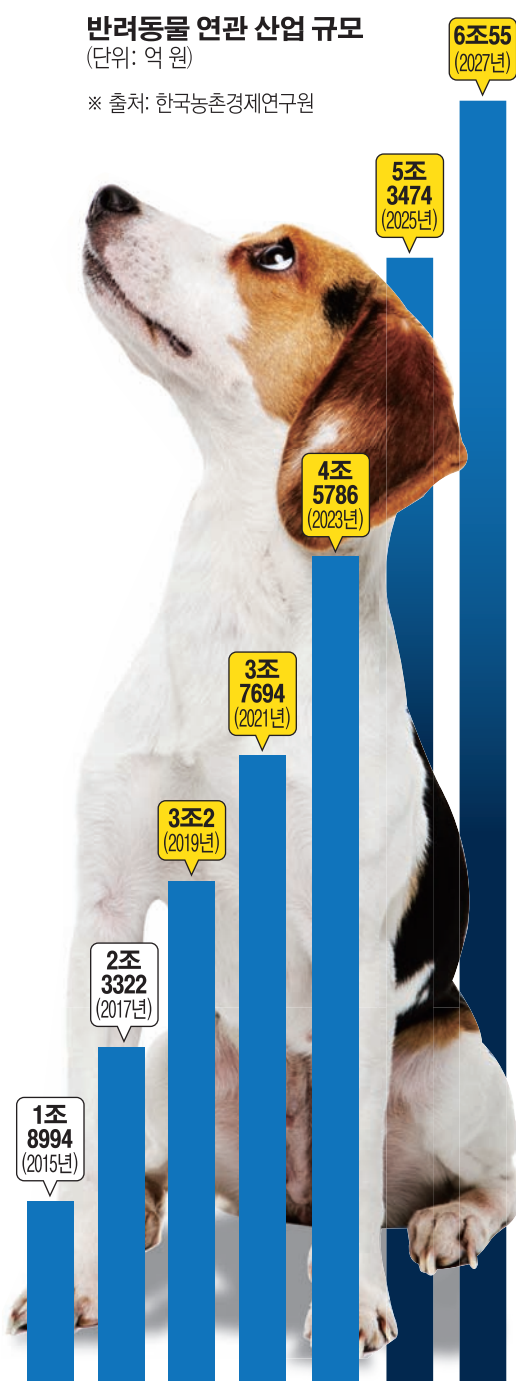
한 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고급화, 프리미엄화되면서 다양한 이색 상품과 프리미엄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몰 입장하고
올인원 펫숍서 건강관리·호텔링

유통가, 異色 서비스 차별화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유통 업계는 차별화된 이색 서비스도 내놓고 있다.

카테고리 킬러, 즉 전문점 형태로 반려동물 관련 상품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반려동물인 '몰리(Molly)'의 이름에서 착안한 '몰리스 펫샵'이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2010년 구성점에 '몰리스 펫샵' 1호점을 시작으로 이마트, 스타필드 등 35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사료, 의류 등 2000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특성을 살려 반려동물과 함께 쇼핑을 온 고객들을 위한 '애완동물 돌보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 고객들은 펫가든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편안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소비자들을 속속 찾아볼 수 있다. 스타필드에서는 식당과 푸드코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



소비자들이 이마트의 반려동물 전문 카테고리 킬러 매장인 '몰리스 펫샵'에서 쇼핑하고 있다. '몰리스 펫샵'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키우는 푸들의 이름에서 착안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여 종의 상품은 물론, 미용, 병원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강아지를 위한 1박 5만 원대의 호텔 서비스와 4만 원대에서 목욕, 스파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2012년 3월 애완용품 관련 카테고리 킬러형 매장인 '펫가든' 송파점을 시작으로 2018년 4월 현재 24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펫가든은 대표적으로 약 2500여 가지 품목을 구비해 기존 애완용품 매장보다 3배가량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품 구성을 갖췄다. 특히, 동물병원에 내과 및 외과 등 동물 전문의가 배치돼 간단한 치료부터 전문적인 수술까지 가능하고, 미용실은 물론이고 애완동물 전용 호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한, 점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문 애완동물 훈련사가 펫가든 고객들의 가정

간에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스타필드는 하남과 고양 각각 14곳에 배변통 시설을 설치했다.

롯데백화점 강남점은 1월 반려동물 컨설팅 매장 '집사'를 오픈했다. 사료를 비롯해 간식, 용품, 서적 등 700여 상품을 준비했다. 매장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펫 컨설턴트 4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종,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동물병원장이 주 1회 매장을 방문해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마트 몰리스펫샵 정회원 바이어는 "1~2인 가구가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면 반려견 용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료나 간식 등 상품뿐 아니라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시장 활황이지만 동물복지는 후진국

반려동물 시장이 지난해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팽창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제품이 여전히 외국 브랜드에 밀리고 있어 산업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의 70%는 네슬레 퓨리나, 시지, 로얄캐닌 등 외국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림과 동원F&B 등 국내 브랜드의 연구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에 진입한 외국 브랜드의 기술력을 따라가기 위해선 시스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현중 부 연구위원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의 수요와 연관산업 규모가 커지는 반면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료산업에 대해서

"기초 통계가 부족하며 국내산 고급 육류 원료 공급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국내산 사료의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무분별한 동물 유기, 펫티켓 실종 등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지방자치단체 등에 구조된 유기동물은 8만9732마리로 전년보다 9.3% 늘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3월 신학기부터 희망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교육을 시행하고 나섰다.

유통업계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편집숍인 몰리스펫샵은 최근 반려동물의 교육이나 문화 등 질적 측면에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에 따라 애견 훈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몰리스펫샵은 전문가들의 강좌를

펫푸드 70% 수입産...기술 확보 시급

펫티켓·유기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통해 견주들이 반려견 훈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펫에듀 패키지를 기획했다. 훈련 정보와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고객들의 책임감도 높여준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곳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교육이나 분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책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펫티켓 산책용품' 부문을 새로 오픈하기도 했다. 반려동물의 행동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가슴줄부터 공공장소 이동 필수품인 이동 가방까지 펫티켓을 위한 상품군을 준비해 야외에서 벌어지는 반려동물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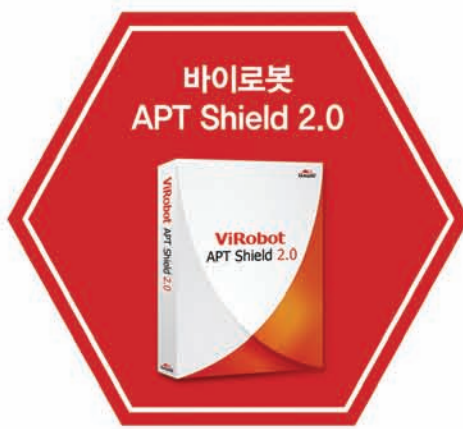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해외 매각’ 금호타이어 43% ↑ … ‘공장 증축’ 원팩 63% ↑

코스피지수는 4월 첫째 주(2~6일) 전주 증가보다 16.27포인트(0.67%) 하락한 2429.58로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완화되는 듯했으나 재정화 양상을 보이자, 우리 증시도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187억 원, 2468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개인만 홀로 6867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베스트&워스트

4월 2~6일

코스닥지수는 전주 증가(871.09)보다 3.13포인트(0.36%) 하락한 867.96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중 무역분쟁 이슈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물론 우리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달 5일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출범으로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로 촉발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1억 원, 155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홀로 393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금호타이어, 경영 정상화 기대감 = 금호타이어는 지난주 42.80%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3거래일간 상한가를 기록했다. 법적 관리 위기에서 벗어나 경영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배경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 조합원 투표로 해외매각에 찬성했으며, 이에 금호타이어는 2일 이사회를 열고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를 최종 의결했다. 금호타이어 재권단은 6일 중국 더블스타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금호타이어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영향으로 5일과 6일 하락세를 보였다.

식품 첨가물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보락(73.41%)은 전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뚜렷한 호재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파미셀(32.48%)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대한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파미셀이 네이처셀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텝'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 반려 처분의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처셀의 반려 처분 소식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파미셀을 투자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 파미셀은 지난해 말 식약처에 줄기세포 간경변 치료제 '셀그렘-리버'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나노메딕스(20.92%)는 나노기술을 활용한 인체용 암 치료 장비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2일 동물용 나노기술 치료 장비를 내달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용 장비가 5월 중 제작이 완료된다면 인체용 장비 개발 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원료의약품 제조사 보락, 뚜렷한 호재 없이 73% 급등

限韓令 해제에 신세계인터내셔널·롯데관광 18% 올라

일진다이아 16% 하락 등 '수소차株 보조금 제외' 타격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달 27일 20% 넘게 급등하자 한국거래소가 조화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보락은 시황변동에 영향 미칠 만한 중요 공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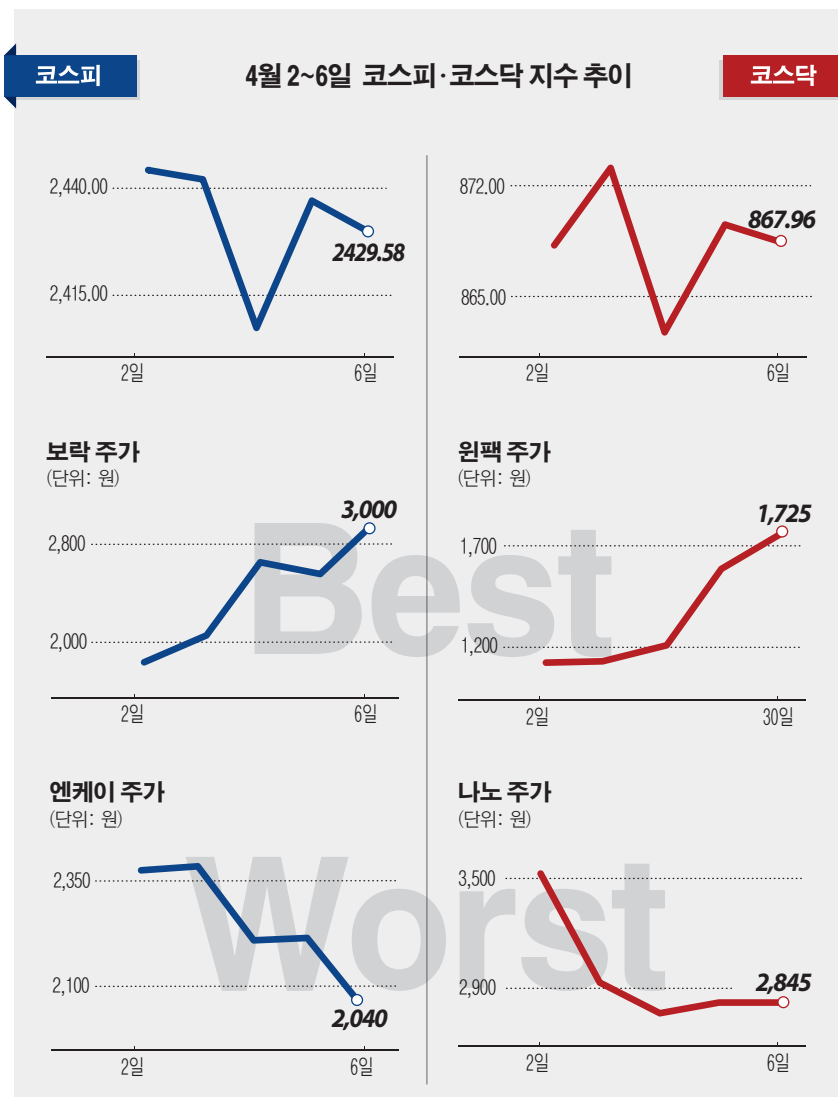
'새내기주' 애경산업(33.08%)은 지난주에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22일 코스피시장에 입성한 이후 애경산업은 단 3거래일을 제외하고 줄곧 오름세를 보였다.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애경산업은 화장품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애경산업이 올해 한·중 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18.11%)과 롯데관광개발(17.95%)도 한한령 해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7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일 장중 52주 신고가를 타쳤다. 이 회사는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지' 사업 호조와 함께 생활용품 브랜드 'JAJU'의 성장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현대상선(18.40%)은 정부의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에 합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5일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해운 산업 매출액 51조 원을 목표로 하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현대상선이 이번 정부 계획안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테마주' 차익실현에 하락 = 지난주 수소차 관련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에서 수소 전기차 보조금이 제외됐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최근 수소차 관련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엔케이(-18.24%)와 코오롱머티리얼(-16.43%), 일진다이아(-16.02%), 평화산업(-15.32%), 지엠비코리아(-15.07%) 등이 지난주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던 씨니전자(-16.90%)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소식을 기점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다.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6일 시가총액	3월 30일	4월 6일	등락률
보락	180	1,730	3,000	73.41
금호타이어	1,041	4,615	6,590	42.80
애경산업	1,166	33,550	44,650	33.08
파미셀	1,215	15,700	20,800	32.48
나노메딕스	405	15,300	18,500	20.92
한창	86	2,070	2,485	20.05
현대상선	1,615	4,375	5,180	18.40
신세계인터내셔널	810	96,100	113,500	18.11
롯데관광개발	835	15,600	18,400	17.95
한농화성	88	4,795	5,600	16.79

코스피 하락 10종목

종목명	6일 시가총액	3월 30일	4월 6일	등락률
엔케이	163	2,495	2,040	-18.24
경인전자	40	30,850	25,550	-17.18
씨니전자	125	5,000	4,155	-16.90
코오롱머티리얼	143	3,805	3,180	-16.43
일진다이아	257	27,150	22,800	-16.02
평화산업	94	2,970	2,515	-15.32
지엠비코리아	159	9,820	8,340	-15.07
필룩스	676	20,450	17,500	-14.43
잇츠한불	1,292	67,900	58,900	-13.25
수출포장	86	24,500	21,400	-12.65

(시총·십억 원, 증가·원, 주가등락률·%)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6일 시가총액	3월 30일	4월 6일	등락률
원팩	59	1,060	1,725	62.74
미래SCI	93	3,005	4,500	49.75
리드	102	1,375	1,975	43.64
안트로젠	1,115	100,000	140,200	40.20
에이치엘비	3,535	70,100	97,000	38.37
유에스티	136	4,520	5,970	32.08
삼천당제약	1,094	38,900	49,500	27.25
크레이플래닛	80	1,155	1,465	26.84
이지엘페어	118	9,420	11,900	26.33
오스코텍	910	26,450	33,400	26.28

코스닥 하락 10종목

종목명	6일 시가총액	3월 30일	4월 6일	등락률
나노	45	3,680	2,845	-22.69
네팩스신소재	53	23,850	18,500	-22.43
한프	93	3,355	2,620	-21.91
디에스티로봇	107	1,900	1,545	-18.68
케이씨피드	47	3,450	2,830	-17.97
디에이테크놀로지	101	17,450	14,350	-17.77
SCI평가정보	111	3,800	3,125	-17.76
비덴트	268	15,200	12,650	-16.78
비즈니스온	136	16,950	14,200	-16.22
비엔티	78	11,300	9,530	-15.66

※ 자료:에프엔가이드

◇원팩, 시설투자 결정에 급등 = 반도체 메모리 후공정 전문업체인 원팩이 지난 한 주간 62.74% 올라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4일 49억3000만 원 규모의 공장 증축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87%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반도체 세부공정 중 패키징(PKG) 생산라인 확장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라고 밝혔다.

미래SCI는 지난주 49.75% 올랐다. 이 회사는 6일 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과 운영 확보 차원에서 4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취득 후 재매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 상대방은 이스라엘계 벤처캐피탈인 요즈마그롭코리아 외 10인이다. 한국계

회사 미국 LSK바이오파마의 성과가 두드러지면서 최근에는 바이오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달 말 LSK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완전관해(외견상 질병이라고 판정할 수 없는 상태) 환자가 나왔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기에 6일 두산중공업과 2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상승세를 유도했다. 오스코텍(26.28%)은 미국 암 학회인 'AACR 2018'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유한양행과 공동으로 비소세포성 폐암 항암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 유한양행은 15일 암 학회와 6월 미국 임상암학회(ASCO)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

◇나노,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 = 미세먼지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나노가

미래SCI 50% ↑ … 40억대 전환사채 재매각해 재무 개선

‘벤처펀드 수혜주’ 안트로젠 40%·삼천당제약 27% 올라

가상화폐株 ‘코인사기’ 악재…SCI평가정보 18% 떨어지

래소는 주가 급등세와 관련해 미래SCI 측에 조화공시를 요구한 상태다.

전주부터 강세를 보였던 안트로젠은 지난주에도 40.20% 올랐다. 주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자, 4일 거래소가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화공시를 요구했다. 이튿날 회사 측은 "신주 인수를 통한 타 법인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세부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가 안트로젠을 코스닥벤처펀드 수혜주로 지목한 것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안트로젠과 함께 코스닥벤처펀드 수혜주로 지목된 삼천당제약도 지난주 27.25% 올랐다.

에이치엘비(38.37%)는 지난주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달 16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오름세를 보였다. 그 사이 주가는 109% 넘게 올랐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는 20위에서 6위로 뛰었다. 현재 이 회사의 시총은 3조5353억 원에 달한다. 에이치엘비는 합성수지선 건조, 구멍정제조 등 선박건조 업체이지만, 바이오 자

설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단행 소식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지난주에만 22.69% 빠졌다. 일각에서는 회사 규모(시가총액 447억 원)에 비해 설비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주에는 가상통화 관련주의 하락세도 두드러졌다. SCI평가정보(-17.76%), 비덴트(-16.78%)가 '코인 사기'라는 악재 여파에 약세를 보였다. 서울 남부지검은 5일 투자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코인네스트'의 김익환 대표 등 4명을 체포했다. 국내 5위 규모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대표가 체포되면서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블루체인 활성화 수혜주로 주목받던 비즈니온(-16.22%)도 간접 영향을 받아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다.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던 케이씨피드(-17.97%)는 4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하락세를 보였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4차 산업혁명 시대, ‘뱅크’는 사라지고 ‘뱅킹’만 살아남는다!

은행의 종말이 시작된 지금, 금융의 미래를 먼저 목격하다

금융혁명 2030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핀테크 기술과 은행 스타트업까지 미래 금융의 모든 것을 담다!



크리스 스카너 지음 | 448쪽 | 16,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대장암 사전 스크리닝 하던 ‘에이티젠 NK뷰키트’ “수술 후 면역 상태 모니터링에도 탁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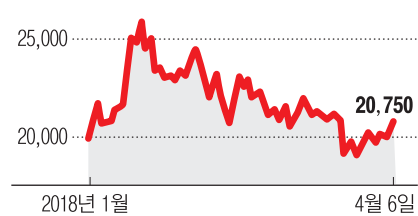
아우어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
NK세포 활성화 검사 효과 입증
종양외과학회 최고 연구상 수상

에이티젠의 NK뷰키트가 대장암 사전 스크리닝뿐 아니라 수술 경과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9일 에이티젠 관계자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 아우어 교수(Dr. Auer)의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 정밀 면역 검사용 의료기기인 NK뷰키트가 대장암 수술 후 환자의 면역 상태 모니터링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아우어 교수 연구팀의 수석연구원인 안드레 마르텔 박사(Dr. Andre Martel)는

에이티젠 추가 추이
(단위: 원)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종양외과학회(SSO)에서 이 임상으로 2018년 최고의 연구상(Best Basic Research Science Paper)을 수상했다. 특히 아우어 교수의 연구팀은 대장암 수술 후 환자 면역상태 확인을 위해 NK세포 활성화도 검사와 NK세포 독성 검사(51Cr Cytotoxicity)를 함께 진행했다.

연구팀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NK세포 독성 검사로 대장암 수술 직후

면역기능 장애를 모니터링 시 면역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수술 경과를 파악하는 데 일반인과 환자 사이에 수치 차이가 적어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NK세포 활성화도 검사는 대장암 수술 직후 환자의 면역 상태를 더 정밀하게 측정 가능해 NK세포 독성검사보다 더 효과적 방법인 것으로 입증됐다.

에이티젠 관계자는 “환자의 수술 전후 NK세포 활성화도 검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NK세포 활성화도 수치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 환자 면역 상태 비교가 가능했고, 수술 경과를 파악하기에도 NK뷰키트가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라며 “이번 연구는 기존 대장암의 사전 스크리닝을 넘어 수술 후 치료 경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범

위 확대를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는 “다수의 연구와 임상상을 통해 NK뷰키트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며 “NK뷰키트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이티젠의 NK뷰키트는 대장암 사전 스크리닝용 검사 도구로 2016년 미국 소화기학회(DDW)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톱(Top)6에 선정됐다. 이어 2017년 6월 소화기학회의 가장 권위있는 학술자인 가스트로엔테롤로지(Gastroenterology)에 대장암과 NK세포 활성화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게재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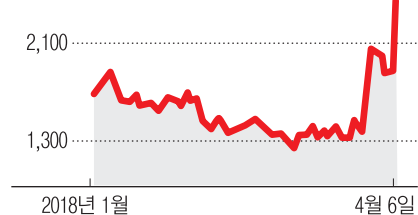
에이비온, 美암학회서 신약 전임상 약효 발표

위암·폐암·신장암 억제 효과
연말까지 글로벌 임상 1상 추진
판매 뎀 年매출 1조2000억 기대

케이피엠텍 회사인 에이비온이 암 연구 관련 세계적 권위의 학회인 미국암학회(AACR,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신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에이비온은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학회에

케이피엠텍 추가 추이
(단위: 원)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업체들과 함께 참여해 개발 중인 신약 ABN401의 위암 약효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ABN401은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가 변이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

발 중인 항암제 신약으로 위암, 폐암, 신장암에서 뛰어난 항암 효과를 보이고 있다. c-Met은 암의 유발과 전이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암 환자들에게서 과다한 발현이 발견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에이비온은 c-Met 유전자 증폭 암종에서 c-Met 바이오마커 진단 결과에 기반한 ABN401 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회사는 ABN401이 위암 세포주 및 환자유래 종양(PDX) 모델에서 우수한 중앙억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온은 ABN401의 전임상 완료

후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임상시험계 획승인(IND) 신청서를 제출하고 글로벌 임상 1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항암제 시장 규모는 15조 원에 달하며 ABN401은 판매 승인 시 연간 1조 20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이번 연구 발표는 c-Met 바이오마커의 발현 여부에 따라 가장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위암 치료의 약효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ABN401의 우수한 약효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 데이터는 향후 글로벌 임상 진행 시 ABN401에 최적화된 환자군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알에스오토메이션 “신재생에너지 매출 비중 30%로 확대”

현대그린에너지·데스틴파워 등
올해 PCS 주문량 증가 호재로

로봇 모션 및 에너지 제어 전문기업 알에스오토메이션이 신재생 에너지 제어장치(PCS, Power Conditioning System) 부문의 호조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매출 비중을 현재 20%에서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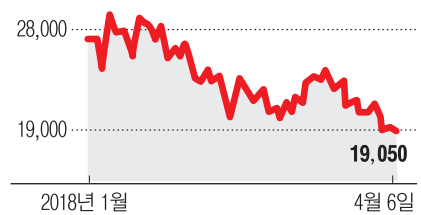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제어장치 부문의 매출액은 약 160억 원으로 전체의 약 20% 수준”이라며 “올해 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의 잠재력과 시장 성장 추이를 보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알에스오토메이션에 따르면 최근 연료전지나 태양광 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 시장의 성장에 올해 들어 주요 고객사인 현대그린에너지와 데스틴파워 등으로부터 PCS 주문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국내 고효율 에너지 변환 기술력을 토대로 100kW급 이상의 PCS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에너지 제어사업 부문의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제2공장을 완공하기도 했다.

강덕현 알에스오토메이션 대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늘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규모는 총 45조 원, 발전설비 규모로는

알에스오토메이션 추가 추이
(단위: 원)



33GW에 달할 것”이라며, “ESS용이나 PV(Photovoltaic, 태양광)용 PCS를 생산하는 국내 최상위 업체로서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전문업체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국내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자동화설비 제조공정까지 갖췄다 바이온, 줄기세포화장품 시장 공략

코스메틱스탠다드 인수
올해 40% 이상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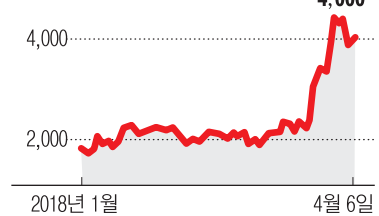
바이온이 화장품 기계설비 제조회사를 인수해 줄기세포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

9일 바이온에 따르면 코스메틱스탠다드의 지분 100%(100만 주)를 80억 원에 인수했다. 인수목적은 사업 확장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이다. 인수대금은 보유현금 40억 원과 전환사채 40억 원으로 지급했다.

2013년 설립된 코스메틱스탠다드는 화장품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회사다. 2017년 매출액 70억1600만 원, 순이익 16억58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시장 매출이 더해져 전년 대비 4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인수는 최근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팩 시장이 꾸준히 성장한다는 전망에서 이뤄졌다.

바이온 관계자는 “국내 마스크팩 제조환경은 낙후된 시설로 인해 위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인건비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원가절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업체들의 수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화 및 위생제조 환경 필요

바이온 추가 추이
(단위: 원)



성에 따른 산업전망을 매우 높게 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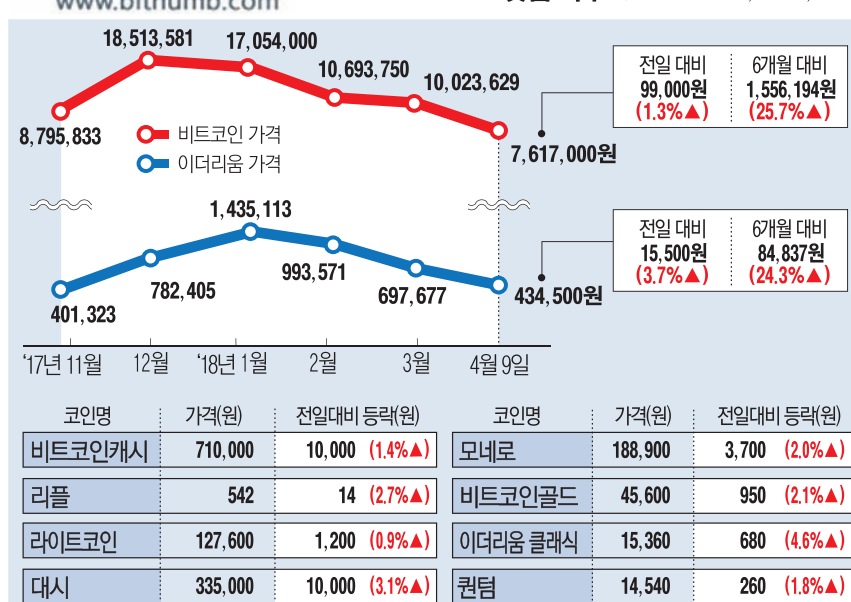
바이온은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미래셀바이오와 진행할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미래셀바이오는 기존 인체유래 줄기세포 배양액보다 주름개선, 미백, 피부재생 등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성장 인자의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중금속, 인체접촉, 외래 바이러스, 마르코프라스마 등 독성 테스트도 2~3개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병준 바이온 대표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화장품과 부자재와 자동화설비 제조공정까지 갖췄다”며 “코스메틱스탠다드의 설비공정과 미래셀바이오의 기술력, 당사의 노하우를 접목해 고가의 화장품 시장을 겨냥한 줄기세포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시장 공략과 실적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4월 9일, 08: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시니어 품격을 위한 문화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8. 04 VOL.40

마 샐러드, 봄을 물들이다
치매 예방효과
로즈마린산 열풍
'브라보 세트'
한 번 따라해보세요

친박 제대로 하는 남자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

세계에서 유일한 박물관
'영국공산당'물관
못 말리는 여자의
무지막지한 귀촌
브라보 버킷리스트
심령 프로젝트
사비와 결과 1순위는 재능기부

just walk
시니어의 볼, 무조건 걷자

COVERSTORY 걷기만 잘해도 오래 산다

- PART1. 건강하게 사는 가장 쉬운 일 - 걷기, 지금 당장 무조건 하라
- PART2. 어디서부터 어떻게 - 알아두면 쓸모 있는 걷기 꿀 Tip
- PART3. 걷기, 본원적 행동과 송고한 철학의 결합이다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종우 교수
- PART4. 걷기좋은 소품 - 신발과 함께 즐기는 아웃도어 라이프!
- PART5. 길이 있어 걷고 또 걷는다



카라반 캠핑으로 귀촌과 수입 한 손에

캠핑카로 관광지를 옮겨가며 유유자적 여유를 즐기는 생활은 시니어가 한 번쯤 생각해볼만 로망 중 하나다. 평생을 직장과 집에 얽매어 살았으니, 구속되지 않는 삶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요즘에는 캠핑카가 현실 탈출의 도구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쓰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귀가 솔깃하다. 꿈꾸던 시골생활도 즐기며 돈도 벌 수 있구나.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못 말리는 여자의 무지막지한 귀촌

채우기보다 비우기가 더 어렵다. 채우는 쪽으로 발육한 욕망의 관성 때문이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기지는 게 욕심이지 않던가. 지긋이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때로 갈피없이 흔들린다. '비우기'에 능하지 않아서다. 귀촌은 흔히 이 '비우기'를 구현할 천사로 쓰인다. 욕망의 경계장인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가끔씩 빈 마음으로 생활을 운영해 한결 만족스런 여생을 누리겠다는 의도, 귀촌한 시니어의 내성엔 대체로 그런 게 들어 있다.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신라보가 만난 사람들

한국 재계에
취직한 사람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이
밝히는 재계의 삶

공백 아닌,
야박이 깃든 삶을 위하여
거리의 인문학자
김천호

'유디트의 정원에
심은 사람'
강원도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독일인 유디트 크빈테른

브라보 시니어 장수 캠페인
'브라보 체조'와 함께 백세 인생 내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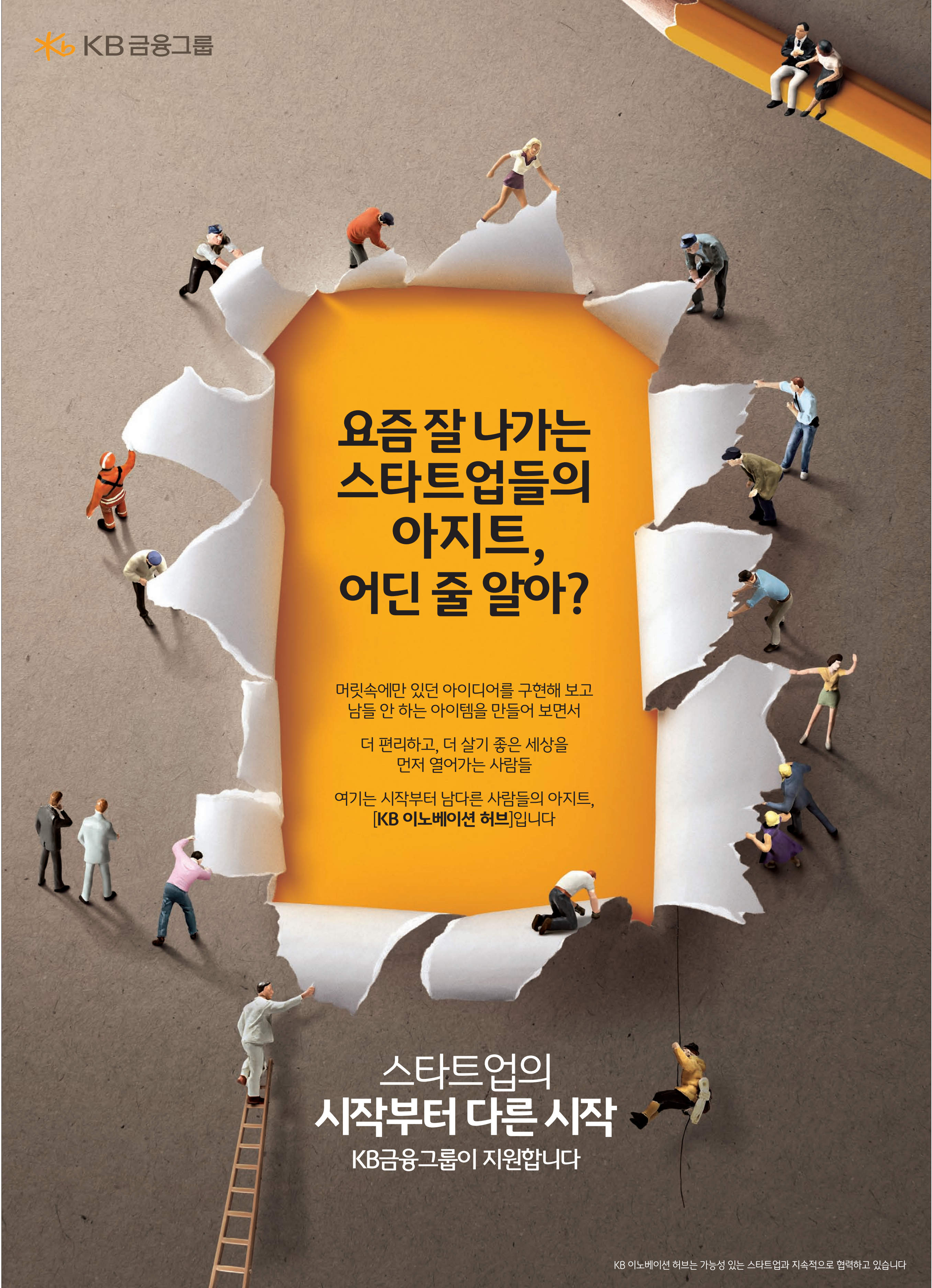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 건강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브라보 체조'는 재활의학과 의료진의 참여로 시니어의 체력과 관절 등 몸 상태를 고려해 고안된 것이 특징입니다. 완성된 체조 영상은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만 따라 하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애 꼭 해보고 싶은 것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일명 '버킷리스트(bucket list)'라고 한다.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쉽지 않다.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매일 버킷리스트 항목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에 앞서 세배이를 통해 시니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여행, 취미, 관계·가족, 일·성취, 보람, 도전 등 총 7가지 주제로 나눠 알아봤다.

레시피
'매콤새콤 채소 비빔당면'과 '마 들깨소스 샐러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부치지 못한 편지
시인 정석주
염소시인, 자연 독심이 있잖아

 KB금융그룹

요즘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의 아지트, 어딘 줄 알아?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고
남들 안 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서

더 편리하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먼저 열어가는 사람들

여기는 시작부터 남다른 사람들의 아지트,
[KB 이노베이션 허브]입니다

스타트업의 시작부터 다른 시작

KB금융그룹이 지원합니다

KB 이노베이션 허브는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